

碩 士 學 位 論 文

노인의 여가 제약요인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윤 연 희

2006년 5월

노인의 여가 제약요인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관한 연구

- 제주시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崔炳吉

尹 娟 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이 論文을 觀光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5 月

尹娟姬의 觀光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6年 5 月

A Study on the Leisure Constraints and Leisure Activity Patterns of Elderly

Yeon-Hee Yun

(Supervised by professor Byoung-Kil Choi)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TOURISM
MANAGEMENT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6. 5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의 제기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2
제 3 절 연구방법 및 범위	4
제 2 장 노인여가의 이론적 배경	6
제 1 절 노인과 여가	6
1. 노인의 정의	6
2.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문제	8
3. 여가의 개념	17
4. 노인여가의 의의	20
제 2 절 여가활동과 여가제약	23
1. 여가활동의 개념 및 유형	23
2. 노인제약의 개념 및 유형	31
제 3 절 관련연구의 동향	38
제 3 장 연구 설계	42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42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42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43

제 2 절 조사 설계	44
1. 설문지 구성	44
2. 표본추출과 자료수집	45
3. 자료의 분석방법	46
제 4 장 실증분석	47
제 1 절 표본의 특성	47
제 2 절 분석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49
제 3 절 가설검증	52
1. 가설 1의 검증	52
2. 가설 2의 검증	57
3. 가설 3의 검증	63
제 3 절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69
제 5 장 결 론	72
참 고 문 헌	75
ABSTRACT	79
설 문 지	81



〈 표 차 례 〉

<표 2-1> 국가별 인구 고령화 속도	12
<표 2-2>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추이	13
<표 2-3> 여가활동의 유형 분류 (1)	28
<표 2-4> 여가활동의 유형 분류 (2)	30
<표 2-5> 여가활동 유형별 구분	28
<표 2-6> 개념적 분류에 의한 여가제약 유형	36
<표 3-1> 설문지 구성	45
<표 4-1>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의한 표본의 특성	48
<표 4-2> 여가활동 제약요인의 신뢰성 및 타당성	50
<표 4-3> 여가활동 요인의 신뢰성 및 타당성	51
<표 4-4> 금전적 제약에 따른 여가활동참여 차이 분석	53
<표 4-5> 시설적 제약에 따른 여가활동참여 차이 분석	54
<표 4-6> 시간적 제약에 따른 여가활동참여 차이 분석	56
<표 4-7> 성별에 따른 여가제약 유형 차이 검증	57
<표 4-8> 연령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 분석	58
<표 4-9> 학력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 분석	59
<표 4-10> 가족형태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 분석	60
<표 4-11> 월평균용돈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 분석	61
<표 4-12> 용돈원천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 분석	62
<표 4-13>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 차이 분석	64
<표 4-14> 연령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 차이 분석	64
<표 4-15> 학력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 차이 분석	65
<표 4-16> 가족형태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 차이 분석	65
<표 4-17> 월평균용돈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 차이 분석	66
<표 4-18> 용돈원천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 차이 분석	68
<표 4-19> 가설검증 결과 종합	71

<그림 차례>

<그림 2-1> 고령인구비중의 전망	11
<그림 2-2> 여가제약의 모델	33
<그림 3-1> 연구모형	4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오늘날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환경위생의 개선, 생활수준의 향상, 과학의 발달은 인간수명의 연장을 가져왔고, 이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하면서 이제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수가 가져 올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삶 자체를 재조명하는 근원적인 물음에 답을 해야 할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노인문제 역시 우리 사회가 고도산업사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던 1970년대 말,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또 하나의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노령화는 갈수록 빨라져, 오는 2022년에는 노령인구가 전체의 14.3%를 기록하면서 고령사회로 2032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4세 이하의 유년인구와 비교한 노령인구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올해 32.9%에서 2010년에는 49.9%, 2030년에는 무려 120.3%에 이를 전망이다¹⁾.

노년기의 문제는 빈곤, 건강장애, 고독, 사회적 장애로 표현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장애는 사회적인 은퇴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사회적 장애로 노인들은 역할상실 또는 내몰려진 여가 생활로 인한 무료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산업화 사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은 복지정책의 주요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구조가 산업화된 많은 국가에서 노인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러한 사회적 요청을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1) 중앙일보, 2000년 7월 11일자 4면.

오늘날의 노인들은 과거 빈곤한 시절의 청년기를 보내고 노동 밖에 몰라 여가활동의 경험과 지식이 없어 고령화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무료함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고, 전통적으로 가족부양에 의존하여 왔으며, 비교적 적은 수입으로 자녀의 교육 및 양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노인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겨를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마저도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대부분의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생산성의 증가와 빠른 발전의 도모라는 미명 아래 노인 실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부양에 대한 자손들의 의식 해이로 노인단독세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²⁾.

대부분의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하며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최소한의 휴식을 한다.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마음의 여유와 수양을 위한 인간관계와 여가활동을 하며 살아간다. 이런 여가 및 사회활동의 욕구는 인간에 있어 보편적 욕구로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시간적 여유가 많은 노인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다.

이런 일반적인 삶의 조건들을 충족시켜 자유롭고 주체적 인간으로서 활기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수행할 의무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당면한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사회적, 가정적 의무에서 벗어나 많은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시간은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의무에서 해방된 시간들’로 정의된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향유하고 즐기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취약한 노인계층은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 장인협·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p.266.

여가는 자기표현의 수단인 동시에 일종의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여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여가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력 향상과 민주주의의 발달로 인간의 자유가 신장된 정치·경제적 요인이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고등교육의 발달과 자아의 관심고조로 전 세대와는 달리 증가된 여가시간의 선용과 여가 능력의 개발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³⁾.

노인의 경우에는 여가활동이 비공식적인 사회 참여활동이 될 수 있으며 여가활동 참여를 통하여 역할 상실로 인한 고독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자아존중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만족 및 행복감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노년기의 여가를 어떻게 유용하게 보내는가는 노인의 정신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여가의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못하느냐는 노년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이다. 인생을 활기차고 뜻있게 보내기 위해서 여가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노인 뿐 아니라 기성세대가 앞으로 직면해야할 필연적 문제이기에 노인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년기는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약화되고 은퇴로 인하여 사회적인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독특한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시기이므로 생활주기 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⁴⁾.

노년기 여가활동은 노인이 가족과 사회의 소외에서 벗어나 자긍심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신체 및 정신건강, 삶의 만족감, 심리적 안녕 등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여가시간의 증가로 노후 생활을 무료하게 보내는 노인들이 보다 즐겁고 보람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각종 여가프로그램과 아울러 지역 사회 내 노인이용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게 되었다⁵⁾.

3) 박용범·김학신, “노인여가활동의 발전방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20호, 2003, p.695.

4) 송정선,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2.

5) 최영완, “한국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3.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전반적으로 노년기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경제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여가활동을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약화와 사회, 경제활동으로부터 이탈을 겪게 되는 노인들에게 여가활동은 노년기 삶을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노인들은 여가활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의 증진, 사회적 접촉기회의 제공, 노년기의 삶에 대한 만족감의 증진, 노인 자신에 대한 신념과 자기 신체에 대한 자신감 부여, 자기 가치성의 확신, 재미있고 즐거운 생활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은 과거 가족들의 생계를 전담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였거나, 건강상의 이유나 경제적 어려움, 또는 정보의 부족으로 계획된 여가에 참여하지 못하고 단순 소일거리로 무료함을 달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현 시점에서 노인들을 위한 여가욕구에 대응할 정책적 대비책을 마련하여 향후 전개될 여가사회에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생활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통해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여가, 여가활동 및 여가제약의 개념을 밝히고 실증적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여가제약과 여가활동유형에 관해 연구하기로 하였다.

제 3 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노인여가에 대한 기존문헌연구 및 노인여가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기존 문헌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서 국내외의 각종 서적과 학술 또는 학위 논문, 정부 및 기타 연구기관의 간행물 등을 조사·활용하는 문헌조사방법을 취하고자 하며, 국내외 서적과 논문의 문헌조사는 노인여가활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바람직한 노인여가활동 향상에 제시하는데 있어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연구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와 각종 자료들에 대

한 분석은 노인들의 여가활동실태과악에 이용하였다. 또한 여가제약과 여가활동참여 유형과 관련된 문헌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적인 연구방법으로서 제주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한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시에는 노인들에 대한 예의가 올바르고 잘 훈련된 조사원들의 직접 면접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설문조사는 먼저 기존문헌연구와 조사결과에서 나온 설문항목의 여러 문항들에 대한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를 회수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공간적으로는 제주시 노인정을 중심으로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시간적으로는 설문지는 2006년 4월 01일부터 10일까지 10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된 설문지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일원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제 2 장 노인여가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노인과 여가

1. 노인의 정의

노인(老人)이란 용어는 어의 상으로는 “늙은이” 또는 “나이 많은 자”로서 일반적으로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며,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렵다. 이는 특히 노인에 관한 개념 규정에는 특정한 국가나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동시에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그 정의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⁶⁾.

우선 1951년 제 2회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을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을 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개념을 규정하였다. 이를 세분화하면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 조직에 결핍이 있는 사람,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인체기관, 조직, 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생활 자체의 적응이 점진적으로 결손되어가고 있는 사람,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브린(L. Breen)은 노인을 생리적·생물학적인 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⁷⁾.

장인협⁸⁾은 다음과 같이 노인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자신의 자

6) 이혜원, “노인복지론”, 유평출판사, 1999, p.172.

7) 장인협·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44.

8)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노인문헌목록, 서울: 홍익, 1996, p.44.

각(self-awareness)에 의한 노인으로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노화의 생물학적, 사회적 및 심리적 측면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지만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다양한 면이 있어 객관성이 크게 결여되어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정의이다.

둘째, 사회적 역할상실에 의한 노인(사회적 노인)으로 주요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노인으로 보는 것인데, 사회적 직업 활동에서 퇴직 또는 가정에서의 주부의 지위와 역할을 이양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노인이다. 이러한 정의는 노인을 사회적 역할 면에서만 보았고,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분명치 못한 사람이나 그러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기 힘든 정의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일반적인 노인의 기준은 60세를 환갑이라 하여 전통적으로 노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노인수명의 연장에 따른 장수노인의 증가로 60세 노인에 대한 노령인식이 희박한 추세이다. 또한 노인에 대한 법적인 적용이 65세를 기준으로 하며 마을단위 경로당에서의 최저 적용연령기준이 65세 이상임을 감안하면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통용되는 노인연령은 65세를 기준함이 적합하리라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노인이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이 자신의 과거보다 떨어지는 연령층이라 총칭된다. Breen의 정의가 현대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지만⁹⁾ 이러한 추상적인 정의 이외에 사회과학적 연구상, 정책 및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시간경과의 단위인 달력상의 일정연령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왔다.

노인은 이전에 강조되었던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같은 무력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대중으로 하여금 노인들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진부한 인식을 갖게 하며, 이에 따라 노인을 더욱 무력한 존재로서 고정화시키게 된다. 즉 노인들은 융통성이 없고 경직되고, 노쇠하고, 아량이 없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 노인들은 노인이라는 그 언어적 의미에서부터 자신들이 사회의 주류를 벗어난 소외계층이라고 여기며 이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대신에 의존적 성향을 띠게

9) Breen, L.,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1960, pp.147-148.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구에서는 ‘elderly people’(노인층)보다는 ‘aged people’이라 부르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노인(老人)이라는 단어 대신에 고령자(高齢者)라고 불러 노인들 스스로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노인은 기능적 측면에서 신체적 기능이 현저하게 감퇴되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불안감, 고독감, 보수성이 강하고 타인 의존성이 강하며,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시기에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다.

2.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문제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개념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특정한 사회의 경제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으며, 학자에 따라 노인의 이론적 정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노인이 고령으로 인해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개인이라고 규정한다고 해도 실제로 노인이 되는 시기 즉 ‘노령선’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자신들이 노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연령은 남녀 모두 60~64세인 경우(남자노인44.9%, 여자노인5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59세 이하에서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2배 이상 높게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여성의 노인 자각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65세)가 농촌(63.3세)과 중소도시(64.7%)보다 노년시기의 연령을 높게 보고 있다¹⁰⁾.

1998년 60세 이상 지구상의 인구는 5억 7,900만명을 넘어서 전 인구의 10%를 이루고 있다고 하며 2025년에는 19억을 넘어 세계인구의 21%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¹⁾.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고령 인구는 21세기에는 명실 공히 ‘고령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사회’

10)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노인생활 실태 및 정책 방향”, 통권 제4호, 1996.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고령화의 국제동향과 경제사회적 의미” 보건복지포럼 제26호, 1998.

(ageing society)란 노인인구의 상대적 증가를 의미한다. 대체로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내외인 사회로 보는 경향이다¹²⁾.

고령화 사회란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의 인구학적 특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한 국가나 사회의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나 국가로 파악된다. 환원하면 전체인구에 대비하여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태로 인구의 고령화 또는 고령화가 진행 중인 사회를 의미하며, 노인인구가 다른 연령층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여기서 인구구조란 한 사회나 국가의 전체인구의 연령별 구성 비율을 의미하며 인구구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계층으로 구별하여 볼 수 있다¹³⁾.

첫 번째 집단은 비생산적 연소 인구계층으로 나이 0세에서부터 14세까지의 유년 및 소년기의 인구계층을 의미한다.

두 번째 인구계층은 생산연령 인구집단으로 15세부터 64세까지의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연령계층을 의미한다.

세 번째 인구계층은 65세 이상의 비생산적 노령인구집단으로 노동력의 감퇴 및 노화의 진행으로 사회적으로 활동성이 떨어지는 연령계층을 의미한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계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80세 이상의 노년계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구학적 특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고령화 사회에서는 여성인구가 남성의 인구보다 비율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됨으로 고령화의 성 비례를 감안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설명된다.

첫 번째, 고령화 사회의 특징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구조는 피라미드 형태를 띠는 것이 보통이나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사회의 인구구조는 이러한 피라미드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즉 고령화 사회는 저 출산률, 저 사망률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것은 모든 연령대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 밑 부분부터 맨 위 부분까지 비슷한 넓이의 정체형을 보이거나,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노년 계층의 부분이 약간 넓은 모양을 띤다.

12) 조성남 외, “고령화 사회와 중산층 노인의 사회활동” 서울:집문당, 1998, P.25

13)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노인복지편람, 1985, p.23.

두 번째 특징으로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인구고령화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이다.

세 번째 특징은 평균수명의 연장이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필연적으로 수명연장을 초래하게 되지만 2001년에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6.5세로 남자 72.8세, 여자 80.0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로 평균수명은 2020년은 80.7세로 남자 77.5세, 여자 84.1세, 2030년 81.5세로 남자 78.4세, 여자 84.8세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네 번째 특징은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는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 중에서 노인이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거나 독신으로 생활하는 단독가구의 수가 최근 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더불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¹⁴⁾.

노인들은 신체적·정신적 능력이나 적응력이 감퇴하여 일반적으로 작업의 속도가 떨어지며 사람과의 교류가 어렵게 되어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육체가 노화함에 따라 신체적 기능이 쇠퇴하고 건강을 상실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일자리와 수입을 상실하게 된다.

이 시대의 노인들의 가치관은 자신들의 부모, 자식, 그리고 자신의 가문 및 친척에 대한 강한 일체감을 갖게 하였고, 이들 대가족을 위한 물질적 희생은 자신들의 노후를 위하여 저축할 여유를 갖지 못하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노화현상 또는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되어 근로소득을 잃게 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된다.

즉 빈곤, 질병, 고독, 역할 상실의 4가지 고통에 시달리게 되며, 자신의 일상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노인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약화, 현대의 생산기술체계에 적합한 지식기술의 미보유 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집단이라 할 수 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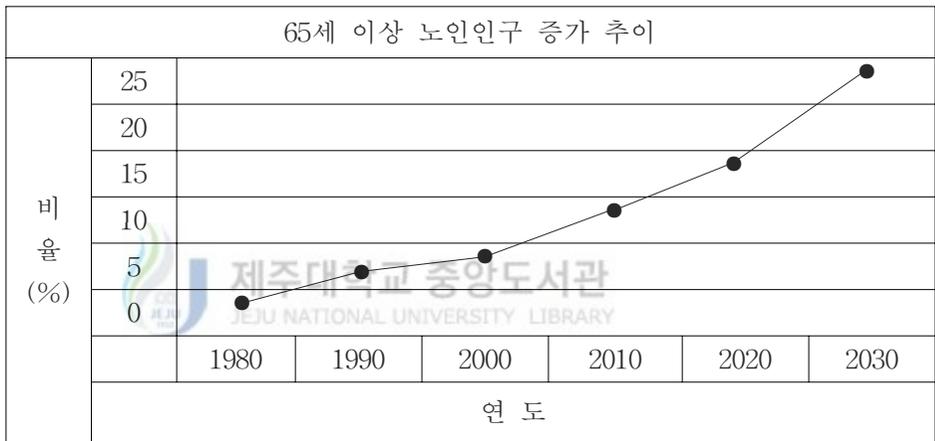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이 되면 노인층의 규모는 73만 4000명(전체인구의 14%,

14) 한국노인복지학회,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방안”, 노인복지연구 통권 제4호, 1999.

15) 신섭중, “한국노인복지정책론”, 대학출판사, 1993.

2026년에는 110만 3000명 20%)이 된다¹⁶⁾. 이 경우 노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층의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위원은 ‘2000년만 해도 생산 가능인구(15~64세) 9.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30년쯤에는 2.3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한다.’고 전망했다¹⁷⁾. <그림2-1>에서는 고령인구비중의 전망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림 2-1> 고령인구비중의 전망



※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3

우리나라의 인구지도 변화는 40년만에 이뤄졌다.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출발점이다. 가임(可妊)남녀에게 가해진 정관 및 난관수술 권장 압력, ‘아들 딸 구별 없이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가 반복되면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신생아의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6.0(1960년) → 2.1(1984년) → 1.4(1999년)로 낮아져, 인구수는 현상 유지조차 힘들어졌다.

초혼(初婚)연령이 늦어진 것도 출산율을 감소시켰다. 초혼연령은 남 25.4세 여자 21.6세(1960년) → 남 29.3세 여 26.5세(2000년)로 높아졌는데 이는 여성의 교육열, 미혼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자아성취 욕구 증대도 배경이 됐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9년에는 청장년층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예산처는 1일 ‘고령화 진전과 예상되는 주요

16) 통계청, “1999 한국의 사회지표”, 2000.

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화 사회를 향한 노인복지의 실천과제”, 1995.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9%인 377만명을 기록,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또 2019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13.9%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¹⁸⁾. <표2-1>에서는 국가별 인구 고령화 속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2-1> 국가별 인구 고령화 속도

구 분	도달 연도			증가 소요연수	
	7%	14%	20%	7%→14%	14%→20%
한국	2000	2019	2026	19	7
일본	1970	1994	2006	24	12
독일	1932	1972	2012	40	40
영국	1929	1976	2021	47	45
이탈리아	1927	1988	2007	61	19
미국	1942	2013	2028	71	15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자료”, 2001

국제연합(UN)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14%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로 간주된다. 기획예산처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들어서는 기간은 19년으로 프랑스(115년), 미국(71년), 일본(24년)에 비해 매우 빠른 수준이라고 밝혔다¹⁹⁾.

또한 노인인구를 생산연령인구(15~64세)로 나눈 ‘노인 부양비’는 2002년 현재 11.1%로, 생산연령인구 약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생산연령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²⁰⁾.

일반적으로 사회구조가 산업화된 사회일수록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함께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 경제적인 문제부터 건강의 문제 및 심

1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2.

19)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미래사회와 노후생활”, 통권 제14호, 2002.

20) 조선일보, 2002. 11.1. 10면

리적 소외나 부양의 문제 등 다양하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수반한 전반적인 노인지위의 약화와 더불어 핵가족화는 친족관계를 약화시키고 세대 간의 고립을 심화시킨다. 더구나 노인의 지식, 경험과 노동력의 가치 등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노동시장의 요구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200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표2-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인구의 7.1%인 337명으로 전체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으며, 2022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 (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¹⁾.

<표2-2>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 추이

(단위: 천명)

연도별 구 분	'60	'70	'80	'90	'99	2000	2001	2020
전 인 구	25,012	32,241	38,124	42,869	46,858	47,275	47,676	52,358
65세이상 노인인구 (%)	726 (2.9)	991 (3.1)	1,456 (3.8)	2,195 (5.1)	3,204 (6.8)	3,371 (7.1)	3,543 (7.4)	6,899 (13.2)

※ 자료: 보건복지부, 2001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지침, 2001.

급속히 진행된 한국사회의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는 노인층을 단순히 피 부양 인구로 전락시키고 노인의 삶의 질을 점차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체제가 아직도 미비한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자녀의 지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나, 점차 가족과 사회의 지원으로부터 격리되면서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 이외에도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사회적 고립, 건강 상실, 정서의 황폐화 등의 문제들과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면서 사회학, 인구학, 사회복지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문제가 중요한 연구주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아직까지는 고령화의 초기단계에 불과하다고 하겠지만 머지않아 본격화될 것이고,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불원간 우리에게도

21) 보건복지부, “2001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지침”, 2001.

심각하게 닥칠 것으로 예상 된다.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 및 건강의 유지는 물론 최소한의 문화적 욕구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수입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들이 자신의 소득이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자립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지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후의 소득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인들의 소득으로는 일과 직업을 통한 근로소득, 연금과 저축을 통한 재산 소득이 있으며, 자녀 및 친척의 지원에 의한 의존적인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종교단체 및 구호기관의 지원, 그리고 정부의 생활부조 등이 노인의 소득원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부분 주 소득원을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다음의 주 소득원은 본인의 일이나 직업을 통한 근로소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사회와는 달리 아직까지 노인의 생활보장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에 사회보장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으로서 노령연금 등에 의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현재 노령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는 과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중 20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 시 연금형태의 급여를 선택한 자들로, 전체 노령인구의 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²²⁾.

우리나라의 노인들도 점차로 국가에 대한 노인의 권리를 주장함과 동시에 노동력이 있는 노인들은 자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인 소득을 위해 재취업 또는 지역별 공동작업의 기회를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자립적 소득은 축소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경제 활동 참여 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령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경제적인 고통과 사회적 소외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노인들은 낱알이 진보하는 산업·정보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에 새로이 적응하는 능력이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나이가 들면 근로현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현실적으로 취업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처럼 노인들의 취업은 대부분 농업중심의 1차 산업 분야에 한정되는데,

22) 김익기 외, “한국 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센터, 1999.

이는 육체적 노동을 주로 요구하는 일로서, 노인들의 신체적 능력으로는 많은 제한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분야에 종사해야만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의 낮은 학력 수준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높은 산업 분야에 종사하기 어려우므로 고용 기회 확대를 통한 노인의 소득증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노년기 소득보장을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경제적 노후 준비가 필요함과 동시에, 사회적 차원에서 연금제도 및 생활보장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함께 노인층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 경로우대의 확대 등 여러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1998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경로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경로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 수준의 확대 등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²³⁾.

노인은 생리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노화를 맞게 된다. 노화는 생물학적 생식 능력이 없고, 의모가 추해지며, 자신의 건강기능이 감소되고, 감정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 열등감이 초래되어 무력감에 이르게 하는 소멸과정을 겪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많은 노인들은 사회의 이러한 부정적인 믿음을 내면화함으로써 노인은 더 이상 중요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되며,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건강상태와는 무관하게 대다수 노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신의 욕구를 제공할 능력, 즉 독립심이며 이 목표가 충족될 때 통제감, 활기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이 목표가 좌절될 때는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²⁴⁾. 노인은 역할과 지위 상실, 가족과 친구의 죽음,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통제력의 상실, 서구화된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것 등 기대하지 못한 상실, 감각기능의 저하로 자극의 잘못된 해석, 의심스러운 느낌 등이 심리적 원기를 더욱 감소시켜, 이로 인해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요건에는 사회구조 속에서의 권력이나 세력, 돈과 관련된 경제적인 능력, 도움이나 은덕과 같은 지지 체계, 사회나 가정에서의 역할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노년기의 은퇴나 배우자의 사망, 질병, 수입 감소 등에 따른 조직

23) 한국노년학회편, “노년학의 이해”, 도서출판 동인, 1996.

24) 이중석, “서울시 저소득층 노인의 여가실태와 활성화 방안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61.

참여의 기회 상실, 개인적인 역할 상실, 활동력 쇠퇴 등은 노인들의 생활에 역할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며, 이로 인해 노인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²⁵⁾.

Wylson²⁶⁾은 개인에게 있어 가장 커다란 지지체계라고 볼 수 있는 가족은 노인의 힘을 증가시키는 자원 중 하나라고 하였다. 이러한 지지체계가 부족하거나 결핍된다면 노인들은 더욱 무력해지게 된다. 노화와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실존적 상황으로서 결국 무력감을 일으키고, 노인은 지지 받고자 하는 욕구가 아동에 비해 충족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인간에게 있어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영향력은 긍정적인 자존감, 정체감, 통합감에 중요한 요소로서 마음의 평정을 향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인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는 핵가족화와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로 인한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사회의 고령화추세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도출시키는데, 고령화로부터 야기되는 노인 문제는 과거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감소하고 있는 생산 인구수 가운데 젊은 계층의 인구감소는 미래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²⁷⁾.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노인의 사회적 장애는 정상적인 노화과정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힘의 상실을 지각할 때 체험하게 되며, 이는 행위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아닌 즉각적인 감정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의 독특한 사회적 장애의 속성은 “밀려남”, “받아들여지지 않음”, “덧없음”, “의지할 데가 없음”, “기력이 다해감”, “단절됨”, “뒤쳐짐”, “쓸모없음”의 8가지로 체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령사회에 대한 대비는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적정 수준의 생산 인구 계층을 유지하기 위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책기조는 생산인구의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한 인구정책과 더불어 노년 계층의 생활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3. 여가의 개념(시간적)

25) 이해원, “노인복지론”, 유헤출판사, 1998.

26) Wylson, A., Design for Leisure Entertainment, Boston : Butter Worth Inc. 1980.

27) 최신태, “노년사회학”, 경문사, 1986.

여가는 ‘남을 여와 겨를 가’로 구성된 한자어로 순수 우리말로는 ‘틈’이나 ‘겨를’에 해당된다. 즉 어떤 일하고 남은 시간 또는 일과 일 사이의 한가로운 시간을 뜻한다. 여가를 뜻하는 영어 ‘Leisure’는 그리스어의 ‘Schole’과 라틴어의 ‘licere’에서 유래되었다. 여기서 ‘schole’은 학교(school)나 학자(scholar) 또는 학자들의 토론을 위한 장소를 뜻하며 ‘licere’는 조용함(quietness)이나 평화(peace) 또는 남는 시간(spare time) 이나 자유 시간(free time)등을 의미 한다²⁸⁾.

따라서 여가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이 배제된 ‘자유 시간’을 의미하고 있으며 여기서 자유라는 의미는 노동시간의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아무런 구속이 없게 된 상태를 내포하고 있다.

여가현상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함에 따라 여가는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가 분야에 대한 연구는 과거 일부 학자들의 흥밋거리에서, 지금은 하나의 전공분야 또는 개별학문의 영역으로 인정될 만큼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여가라는 용어에 대한 공통의 합의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여가라고 불리는 용어가 그 말이 지니는 의미와 조건 그리고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시대와 학자, 그리고 학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여가는 사회활동에 기초를 둔 현상이나 모든 사회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여가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여가의 개념은 시대, 장소,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하나의 의미로 정의 내리기 어렵다²⁹⁾.

여가라는 용어는 그리스 시대에는 높은 진리를 추구하는 명상이라는 의미에서 시작되어,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어져왔다. 여가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직업이나 생활양식 등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벗어나지 않는다. 여가에 대한 대부분의 공통된 접근으로 여가를 비의무적 시간 또는 임의의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노동·수면과 아울러 기타 필요한 활동으로부터 벗어난 자유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정의

28) 오순환, “한국여가문화의 이해”. 서울:일신사, 1999, pp.13-18.

29) 이철원, “여가의 재해석”, 대한미디어, 1999, p.38.

하였다. 즉 여가는 개인이 휴식, 쾌락, 만족감, 즐거움과 같은 삶의 질적인 면을 추구하고자 할 때 자유롭게 선택하는 신체활동으로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³⁰⁾.

오늘날 현대사회는 기계의 발달과 계속되는 기술혁신으로 인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또한 고도로 기계화된 사회 속에서 인간은 분업화, 전문화, 조직화, 정보화된 사회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즉 현대사회는 대중사회로서 대중의 역할과 지위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특정집단의 문화독점이 쇠퇴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그 빈자리를 대중문화라는 아이콘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중문화는 놀이문화, 여가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여가의 대중화, 민주화를 가져왔다³¹⁾.

현대사회에서 여가는 다양한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가의 개념을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가개념에 대한 현재까지 널리 인정되고 있는 개념 중 시간 개념으로써의 여가에 대해 요약할 수 있다.

인류사회가 근대 산업사회로 이행되면서 기술문명의 발달로 인해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상대적으로 일에서부터 벗어난 여가시간, 즉 자유시간이 증가하면서 일과 여가의 명확한 분리가 가능해짐으로서 대두된 개념으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여가의 개념이다. 이러한 견해는 실제로 Parker와 Brightbill³²⁾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여가를 정의하는데 있어 가장 설득력이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³³⁾.

많은 사전에서 여가를 노동과 의무적인 행위에서부터 자유로운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어와 스페인어의 경우에도 영어에서 말하는 정확한 뜻의 여가는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자유시간이라는 개념만이 존재한다. 이는 시간의 관점에서 여가를 보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가를 시간으로 정의내림으로써 노동과 여가를 명확하게 대비시켜주고 여가를 손쉽게 계량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자유시간과 공백시간이

30) 위성식의 2인, “현대체육학연구법”, 서울:대경북스, 2002, p.51.

31) 김근홍, “노인복지이해”, 서울:학문사, 1999, p.12.

32) Brightbill, C. K. & ever, H. D. Community Recreation. Prentice-Hall, 1960.

33) 권육상의 2인, “노인생활건강”, 서울:윙출판사, 2001, pp.27-28.

진정한 여가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와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또한 시간론적 정의는 여가의 개념을 규정하는데 전제가 되는 중요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여가의 질적인 성격을 시간으로 도식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³⁴⁾.

여가는 각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양식 및 생활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는 사회·문화적 성격의 것으로 특정사회가 지니고 있는 가치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규범이 개입된다. 따라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개념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가는 시간자원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자신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자유 재량적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여가를 자유 재량적 시간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다양한 여가의 개념을 현실적으로 적용시킬 때 고전적 개념이나 사회계층의 상징으로서의 개념은 현대적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고 비 근무활동의 개념은 여가의 존재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일이 존재 하여야 하는 것이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다³⁵⁾.

여가를 자유 시간, 비의무적인 시간 또는 자유로 선택한 시간 등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비교적 현대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적인 입장과는 달리 여가를 시간 구분의 한 수단으로 노동이나 그 밖의 생명보존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이른바 자유시간이라 주장한다. 여가시간, 즉 생존과 생계의 구속된 시간으로부터 해방된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여가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시간은 생존과 생계에서 지친 심신을 쉬게 하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를 줄 뿐 아니라 개인이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여가를 시간개념으로 볼 때 여가란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활동을 한 후에 남는 잔여시간을 의미하며, 노동, 가족, 사회 및 기타 의무가 수행되고 난 뒤에 개인의 의사대로 할 수 있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 및 정신적 휴식과 회복, 오락, 자아실현, 지식의 향상, 기술의 개발, 사회활동의 참여를 제공해주는 기회로 여가를 정의하면서 여가를 기회와 활동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34) 이인수, “노인복지론”, 서울:양서원, 2003, p.29.

35) 홍숙자, “노년학개론”, 서울:도서출판 하우, 2002, p.32.

인식하였다. 또한 생활에서 모든 의무와 책임,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의 자유로운 시간인 동시에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로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였다³⁶⁾.

따라서 여가는 사회활동에 기초를 둔 현상이다. 모든 사회와 모든 상황에 맞게 여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보편적 정의는 없으며, 여러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분석하는 입장에 따라 그 개념이 다양하다. 여가 또는 여가활동이라는 것은 노동에 반대되는 개념이고 강제성·의무성이 희박한 선택적 행위이며 정신적·정서적 면에서 자유·즐거움·휴식 등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가는 자유 또는 비의무적이라는 시간특성과 자유재량 또는 자발적이라는 활동의 주체적 특성을 주축으로 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제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의 한 영역인 여가를 시간개념으로 파악코자 한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여가이기에 개념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이라는 용어로 시간과 활동의 개념을 구별하고, 여가의 주관적, 심리적 개념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평가에 근거하여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을 측정할 것이다.

4. 노인여가의 의의

노인의 여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노년기에 있어서 특정한 사회적·가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도중에 갖게 되는 여유 있는 시간을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부여된 일정한 역할이 없어서 막연하게 보내는 긴 시간을 말한다³⁷⁾. 주로 노인의 여가는 후자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노인의 여가란 매일 매일의 생활전체로서 노인여가 문제의 내용은 취미, 오락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봉사활동, 교육, 훈련 및 문화적 활동을 포함한 다양하고 전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⁸⁾.

36) 김오중, “여가·레크레이션”, 서울: 대경출판사, 1994.

37) 이영애,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p.5.

38) 이영옥, “노인의 여가활동과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94, p.9.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노인이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에서 벗어나 자긍심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신체 및 정신건강, 삶의 만족감, 심리적 안녕 등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가는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가활동을 통하여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여가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여행, 박물관 관람 등을 통하여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러한 여가활동은 진정한 의미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보다는 어떠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참가자의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지가 더욱 더 중요하다. 많은 연구에서 노년기에서의 적절한 여가활동은 건강한 삶의 만족도를 증대 시키고, 노인의 긍정적인 정체감과 자존감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노인의 여가활동이 갖는 의의를 신체적, 심리적인 효과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쇠약해지고 활동이 곤란하게 된다. 이런 신체적 노화현상은 산책이나 가벼운 등산 또는 운동 등으로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 각종 신체적 여가활동은 혈액순환, 소화 작용, 신경작용 등에 좋은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의 여가활동은 심리적인 스트레스 해소, 정서 교육, 성격형성에 큰 효과를 가져 온다.

노인들은 복잡한 현대사회 환경과 바쁜 생활 리듬 속에서 쉽게 피로를 느끼며, 소외감과 고독감을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 그러나 여가활동을 통해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정서를 순환시킴으로서 이러한 심리적 고통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령자에게 여가생활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의 여가활동은 노령기의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유지시켜 줌으로서 노인이 가치 있고 만족스런 삶을 영위하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무료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은 노인의 고독함 및 고립감 등 심리적 약화를 가져옴으로써 노인 스스로가 불행하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은퇴 및 배우자의 사별 등으로 인해 역할상실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어느 시기보다 많으며, 이는 노인의 고독감 및 고립감등의 심리적 약화를 통해 노년기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

제의 심각성이 크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충실화 등으로 노인 생활의 경제적인 문제는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으나 노인의 여가소일 문제가 가일층 심각한 문제로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서구의 노인들은 개인주의적이고 유년기부터 독립된 생활이 습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으로부터 기대하는 바 없고, 어떤 면에서는 고독을 조용히 음미하고 이겨내는 심적 여유를 가졌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노인의 경우는 가족주의적이고 의존적인 태도가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더욱 불만을 호소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혹은 소단위의 지역 사회 내에서 노인의 여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역할이 증대되어야한다³⁹⁾.

사회적으로 고독한 상태에 놓여가고 있더라도 노인 스스로가 자기 계발에 힘써야 하며, 그 욕구 수준에 대한 조정 능력은 노인 자신의 자아와 관계된다. 따라서 심리적인 면에서의 노인 대책에서는 노인의 자아 확립에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매스컴의 교육 프로 편성, 노인학교의 개설, 또한 새로운 적당한 직업과 기능 습득 등 이러한 심신의 재개발을 통하여 노인의 가족과 사회의 생활 대열에 편입시킴으로써 그 고립과 고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비록 현재는 생계를 중심으로 한 노인의 생활보호에 주력하고 있고, 그나마도 저위의 수준에 있지만, 장차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노인부양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노인문제도 여가활동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급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실정에 맞는 가능한 여가선용대책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씩 개발해 나가야 한다.

제 2 절 여가활동과 여가제약

1. 여가활동의 개념 및 유형

39)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한신대학교 출판부, 1997, p.56.

활동특성에 있어서 청장년들의 여가의 개념과는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적 여가개념은 사회·가정적 역할을 추구하는 도중에 갖게 되는 여유 있는 시간을 의미하지만 노인의 여가는 긴 시간을 일정한 역할 없이 막연하게 보내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합목적의 여가활동은 일의 피로감으로부터 벗어나 생태학적 리듬을 회복하고, 일상의 단조로움으로부터 새로운 내적·외적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 주며, 궁극적으로는 전인격적 자기완성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산업화로 인해 빼앗긴 자신의 그 어떤 것을 회복하고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여가활동이 구분되어진다. 즉 여가활동을 분류할 때 여가시설, 여가의 참여 동기, 일과 여가의 이분법적 기준을 활용할 수도 있다. 기존연구의 여가활동 분류는 참여빈도, 욕구 충족적 특성, 개념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여가활동의 유형은 그 분류 기준과 분류방법에 따라 매우 상이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가활동 유형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Mckechnie는 여가활동을 조작적, 공작적, 지적, 일상적, 스포츠, 매혹적 스포츠 등으로 분류 하였다. 조작적 활동은 주로 손을 이용하여 하는 활동으로 자동차 수리, 당구, 사냥 등 도구를 가지고 하는 활동을 말한다. 공작적 활동은 재료를 이용하여 대상을 만드는 활동으로서 요리, 의상 디자인, 뜨개질 등이 있다.

지적활동은 활동자의 지적 욕구를 위해서 하는 활동으로 영화 구경, 음악 감상, 독서 등이 있다. 일상적 활동은 일상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활동으로서 정원 가꾸기, 일광욕, 친구 방문 등이 있다. 스포츠 활동은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배드민턴, 야구, 축구, 조깅 등이 있다. 매혹적 스포츠 활동은 인내심, 지적, 신체적 활동을 요하는 것으로 양궁, 등산, 요트, 스키 등이 있다⁴⁰⁾.

Orthner는 여가활동 유형을 개인, 병행, 결합 활동 등으로 분류하였다.

40) G. E. Mckechnie,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leisure : Past behavior", Journal of Leisure Research, 6, 1974, pp.17-45.

개인 활동은 혼자서 하는 활동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서 명상 등이 있다. 병행활동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을 위한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주로 무생물을 이용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TV시청, 수집, 음악 감상, 요리 등이 있다. 결합 활동은 다른 사람과의 신체적 활동을 통한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서 축구, 골프, 캠핑, 카누 등 대부분의 스포츠 활동이 포함된다⁴¹⁾.

Gordon의 2인은 20~94세 사이의 미국인의 인지적, 정서적 및 신체적인 면에 있어서의 표현적 관여정도에 따라 여가활동을 감각적 쾌락 추구 활동, 창의적 활동, 발전적 활동, 기분전환 활동, 긴장해소 활동 등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고⁴²⁾, Arlin F, Epperson는 여가활동을 관람 활동,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 개인·소집단 활동, 기계적 스포츠 활동, 클럽·리조트·별장 활동으로 분류하였다⁴³⁾.

한편 Edington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범주 안에서 또는 스포츠, 문화적, 사회적 행동으로서 참여의 질과 양에 의하여 여가활동을 분류했는데, 이러한 여가활동의 분류는 참가자의 성, 연령, 장소, 시설 및 환경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은 여가활동을 예술 활동, 지적활동, 스포츠 활동, 취미활동, 사교활동, 레크리에이션활동, 사회단체활동 등으로 분류하였다⁴⁴⁾.

그리고 Tinsely의 3인은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로 얻을 수 있는 8가지 심리적 이점에 근거하여 여가활동 유형을 카드, 빙고놀이, 볼링, 춤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형태인 교체와 피크닉 같은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보상, 스포츠 관람을 하거나 TV시청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일시적 유희, 가정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정원 손질, 사진 및 고화 수집, 독서를 하며 소일하는 편안한 고독, 뜨개질이나 매듭을 하거나 목공예 및 도예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유의미한 고독,

41) Orthner, D. K., Patterns of leisure and martial inter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8(2). 1975, pp.31-32.
 42) C. Gordon, C. M.Gaitz, & J. Scott, Leisure and lives: Personal Expressivity across the life span, In R. H, Binstok &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Van Nostrand, 1976, pp.42-44.
 43) Arlin F, Epperson, *Private and Commercial Recreation*, New York, N.Y. : John Wiley & sons, 1977, pp.12-16.
 44) Edington, C. R., Jordan, E. J. *Toward a society of Leisure*.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pp.78-79.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자원전문봉사활동을 하거나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모임 등에 참가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유의미한 서비스의 6영역으로 분류하였다⁴⁵⁾.

최근 국내의 연구로서 홍순혜는 노인활동 친밀도에 따라 중요한 사람과의 활동(가족, 친척, 이웃과의 활동), 자발적 조직체에의 참여활동(종교단체의 참여활동), 혼자 하는 활동(TV, 라디오청취, 음악 감상, 독서, 가사일, 영화관람, 혼자 하는 취미활동)으로 구분하였다⁴⁶⁾.

김영모는 노인의 여가유형을 동년배들과 노인정·공원에서 세상이야기를 주고받거나 바둑·장기를 두면서 시간을 보내는 형태, 노인학교에 다니며 교제를 하는 형태, 산책·약수터 등을 다니며 건강관리를 하는 형태, 등산·낚시운동을 통하여 노후생활에 보람을 찾는 형태로 구분하였다⁴⁷⁾.

김광득은 노인여가프로그램의 제공 내용에 의거하여 신체적 활동, 지적활동, 예술적 활동, 사교적 활동, 실습활동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⁴⁸⁾.

또한 유도진은 노인의 여가활동을 능동적 여가활동(연극, 음악회, 오페라 서예, 수목 가꾸기 등의 예술적 활동)과 산책, 운동경기, 드라이브, 낚시, 등산, 바둑, 장기, 화투 등의 신체적 활동 그리고 종교 활동, 회합참가, 친족 및 동료와의 만남, 계모임 등의 사회적 활동으로 세분화하였고, 소극적 여가활동(신문, 잡지, 라디오청취, TV시청, 가족과의 담소)등의 단순 여가활동과 책읽기, 수집, 취미활동의 정서적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⁴⁹⁾.

이선미는 중·노년기의 여가활동 유형을 자기계발활동, 사교 및 단체 활동, 문화 활동, 노인정에서의 소일활동, 종교 활동, 가족 중심적 활동, 안락한 고독 활동 등 7가지로 구분하였다⁵⁰⁾.

이후원은 여가활동 유형을 운동 및 스포츠 활동, 취미·교양활동, 오락 활

45) Tinsely, H.A., Teaff, J.D., Clobs, S.L., and KaufmanN., A System of Classification Leisure Activities in Terms of the Psychological Benefits of Participation Reported by Older Persons. J. of G., Vol 40, No.2. 1985.

46) 홍순혜, “활동이론에 따른 한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4, p.90.

47) 김영모,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0, p.362.

48) 김광득, “현대여가론:이론과 실제”, 백산출판사, 1990, p.521.

49) 유도진, “한국의 여가문화”, 사회과학대학 논문집, 1991.

50) 이선미, “중·노년기 여가활동 유형과 인생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동, 휴양적 활동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⁵¹⁾, 원형중은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을 신체적 활동형, 사회 교제형, 취미·예술형, 교육·문화형, 여행형의 5가지로 나누었다⁵²⁾.

또 이희범은 노인의 여가를 스포츠 활동, 지적·정서적 활동, 사회적 활동으로 나누고 있고⁵³⁾, 송정선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자기계발 활동, 가족중심활동, 종교·사회참여활동, 사교·오락 활동, 소일활동 등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⁵⁴⁾. 이영애는 사회 활동형, 스포츠 활동형, 휴양형, 감상·교양형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고⁵⁵⁾, 김종만은 여가유형을 자기계발활동, 가족중심활동, 종교·사회·경제활동, 사교·오락 활동, 소일활동, 스포츠 활동, 독서활동 등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⁵⁶⁾.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분류 형태의 차이는 여가활동이 개인의 내적인 만족을 위해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가활동의 유형을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준거를 설정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여가는 그 시대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기에 생활이 향상되고 문화가 발전할수록 여가문화도 다양해지게 된다.

노인 여가유형은 가정 중심과 가정 밖에서의 여가활동으로도 구분되기도 한다. 우선 가정 중심의 여가유형으로 ① 손 자녀 양육 등 노인들이 아직 가정에서의 역할을 가진 경우, ② 자녀들과 뜻이 맞아 말벗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동년배를 찾아 외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③ 외출은 하고 싶지만 경제적 사정 및 심리적으로 내키지 않는 경우, ④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노화 때문에 외출을 하기가 힘든 경우 여가를 가정 중심으로 하게 된다.

가정밖에서의 여가는 ① 동년배 노인들과 여가시설인 노인정, 경로당이나

51) 이후원, “여론활동참여유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69.

52) 원형중, “여가활동참여가 수도권 거주 노인의 고독감, 여가만족,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통권 제 18호, 1994, p.155.

53) 이희범, “노인의 바람직한 여가선용을 위한 고찰”, 홍익논총 26집, 1994.

54) 송정선,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96, p.78.

55) 이영애,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56) 김종만,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일산신도시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p.86.

공원 또는 인근공터에 모여 하루를 말뚝 등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 유형, ② 노인여가 시설에서 간단한 취미활동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는 유형, ③ 노인들이 클럽 등을 조직하여 다양한 여가레포츠 및 이성과의 만남을 가지며 여가를 보내는 유형, ④ 여가시간을 건강관리와 연결시켜 즐기는 유형, ⑤ 노인 학교나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평생교육을 받거나, 교양강좌 등에 참석하며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유형, ⑥ 지역사회봉사 등에 참여하며 노후에 보람을 찾는 유형, ⑦ 자녀와 동거치 않으나 자녀의 집을 옮겨 다니며 손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여가활동유형이 있다.

이러한 노인여가유형은 건강한 신체, 고학력,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유형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에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가생활을 위한 보다 많은 편의시설, 공공·민간 기관의 확충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쾌적하고 조용한 휴식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노령기를 의무적이고 시간 제약적인 직업 활동에서 해방시켜 자유로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간으로 보면 여가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는 가는 노령기 생활을 좌우하는 큰 지렛대가 될 것이다⁵⁷⁾.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는 현재까지 여러 가지의 표본조사의 의해서 파악되고 있으나 여가활동 분류가 일치하지 않고 표본이 도시노인에 치우친 경향이 있거나 또는 노인정(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에 치우쳐 있어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나타난 자료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활동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하는데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여가활동 유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 <표 2-3> 과 같다⁵⁸⁾.

57) 김명자, “여가활동과 행복한 노후생활의 향유에 관한 연구: 서울시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196.

58) 김광득, “여가와 현대사회”, 백신출판사, 1997, p.216.

〈표 2-3〉 여가활동의 유형 분류 (1)

학자명	여가 활동 유형
Mcke-chnie	· 조작적활동 · 공작적활동 · 지적활동 · 일상적활동 · 스포츠활동 · 매혹적 스포츠활동
Orthner	· 개인활동 · 병행활동 · 협동활동
Gordon, Gaitz & Scott	· 감각적 쾌락추구활동 · 창의적인 활동 · 발전적 활동 · 기분전환활동 · 긴장해소활동
Edington	· 예술활동 · 지적활동 · 스포츠활동 · 야외활동 · 취미활동 · 사교 레크레이션활동 · 사회단체활동
Tinsely 외 3인	· 교제 · 보상 · 일시적 유희 · 편안한 고독 · 유의미한 고독 · 유의미한 서비스
홍순혜	· 친밀활동 · 단체활동 · 개인활동
김영모	· 노인정.공원(바둑.장기) · 노인학교 · 산책.약수터 등 건강관리형태 · 등산.낚시운동으로 활동
김광득	· 신체적활동 · 지적활동 · 예술적활동 · 사교적활동 · 실습활동
유도진	· 능동적활동 · 소극적활동
이선미	· 자기계발을 위한 단독활동 · 문화활동 · 노인정 참여활동 · 종교 및 단체활동 · 가족중심적 활동
이후원	· 운동 및 스포츠활동 · 취미, 교양활동 · 오락활동 · 휴양적활동
원형중	· 신체적 활동형 · 사회 교제형 · 취미, 예술형 · 교육, 문화형 · 여행형
이희범	· 스포츠활동 · 지적, 정서적 활동 · 사회적활동
송정선	· 자기계발활동 · 가족중심활동 · 소일활동 · 사교, 오락활동 · 종교, 사회참여활동
이영애	· 사회활동형 · 스포츠활동형 · 휴양형 · 감상,교양형
김종만	· 자기계발활동 · 가족중심활동 · 사교, 오락활동 · 독서활동 · 종교, 사회, 경제활동 · 소일활동 · 스포츠활동

자료: 장연옥, 2001⁵⁹⁾.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활동 형태는 대체로 단순하고 오락 위주의 활동이며, 자기계발 혹은 자기실현을 위한 계획적이고 장기

59) 장연옥, “현대노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pp.67~70.(제인용)

적인 활동은 빈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노인들의 경제력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여가에 대한 욕구가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노인 중 연금이나 저축을 통한 노후생활에 대비한 경제적 여건의 호전으로 자신의 노후여가를 다양하게 보내려는 욕구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점이 앞으로 다양한 여가유형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자기계발활동은 자기를 발전시키고 계발하려는 여가활동유형으로 학습이나 노인학교, 독서, 취미활동을 통한 정서적·지적 계발뿐만 아니라 운동, 산보, 산책 등을 통한 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한 활동 등을 추구하는 형이다. 강연회나 노인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여가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가정지향활동은 정원손질, 가족과의 대화, 손 자녀 돌보기, 가족 동반 외식, 가족단위 소풍 등으로 가족과 함께 하거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 유형이다. 노인 중에는 가족중심으로 여가를 즐기려는 경향을 지닌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노인들은 사회일탈설의 심리적 특성을 지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극적 여가활동유형으로 사교·오락의 여가활동과 함께 노인의 여가활동에 있어 중요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집에서 낮잠을 자거나 목욕을 하며 휴식을 취하거나 TV시청, 라디오 청취 및 특별히 하는 일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 등을 말한다.

셋째, 사교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거나, 조기청소, 청소년선도와 같은 사회봉사활동 및 각종 종교 활동을 통해 노후생활의 보람을 찾고 있는 여가유형이다. 이 유형은 노후생활의 여러 국면들을 보완해주고 사회적 역할상실을 보충해줌으로써 개인적인 가치관과 만족감을 부여해 준다. 또한 활동정도는 노인자신이 가지는 자아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정기적인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한국노인의 단체 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오락 활동은 동년배의 노인들과 어울리는 일에 많은 시간을 충당한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회식을 하고, 인근공터나 공원, 노인정이나 놀이터 등에 모여 대화를 나누며 교제의 폭을 넓히거나, 노래 부르기, 화투, 장기, 바둑, 여행, 낚시를 비롯한 각종 놀이 및 운동으로 여가를 보내는 유형이 여기에 속한다.

이상의 분류를 기초로 노인의 여가활동의 유형을 자기계발 활동, 가정지향형, 사교활동, 오락 활동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를 시도한 이유는 노인의 여가 유형은 각각의 여가 제약요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노인의 여가유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경제력이나 시간 등의 변인이 이들 유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기 위해서이다. 아래의 <표 2-4> 와 같이 총 20개의 여가활동 종류별로 여가활동 유형을 분류하였다

<표 2-4> 여가활동 유형별 구분

여 가 활 동 유 형	
자기계발 활동	1 컴퓨터(인터넷, 통신)
	2 학습활동(교양강좌, 노인학교 등)
	3 신문, 잡지, 독서 활동
	4 서예, 미술, 음악 감상, 다도
	5 낮잠, 휴식
가정지향 활동	6 TV 시청, 라디오청취
	7 운동(등산, 산책, 조깅, 체조), 약수터 가기
	8 가족 동반 외식이나 외출
	9 손 자녀 돌보기
	10 화초재배, 집안가꾸기, 음식만들기
사교 활동	11 커피숍, 노래방 가기
	12 시장가기, 쇼핑
	13 주일예배, 미사(종교활동)
	14 사회봉사활동(자원봉사, 후원회 활동)
	15 정치적 각종 정당 활동
오락 활동	16 사회참여활동(계몽, 청소년 선도)
	17 놀이, 오락(장기, 바둑, 화투, 카드 등)
	18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참여
	19 경로당, 노인 회관 참여
	20 친구 및 이웃집 방문

2. 여가제약의 개념 및 유형

여가제약(leisure constraints)이란 용어는 사회심리학적 의미에서 개인의 여가활동을 “제한하는 힘”으로 경험되는 내적인 심리상태나 특성 또는 성격과 외적인 환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동일한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 즉, 여가제약은 여가의 참여와 즐거움을 억제 또는 방해하는 것으로 연구자들에 의해서 가정되고 개인들의 지각하는 요인들로서 정의된다.

여가제약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초반부터 연구가 시작이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개념적인 연구들에 국한되었다. 실증적이며, 경험적인 연구(empirical study)들은 198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⁶⁰⁾.

여가제약에 관한 과거 연구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여가활동들과 관련된 항목들을 일상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히 장애의 좁은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즉 자료 분석에 있어서의 이론적 배경의 취약성을 보임으로써 결국 이는 측정된 개념에 대한 명확성의 부족이나 방법론적인 불일치, 빈약한 기술적 연구의 반복 등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여가제약과 관련된 현상을 과거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즉 여가제약에 대한 초기의 개념화 및 경험적 증거에 의한 관점을 이용하여 과거에 밝혀내지 못한 가정과 주제를 비평적으로 조사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볼 수 있으며, 또한 단일변인에 의한 분석보다는 총체적이고 집합적인 집단차원의 경험적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고, 선행연구들이 여가제약의 접근방법에서 시간, 돈, 교통수단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시도한 반면 최근 연구들은 개념적이고 방법론적인 불일치 문제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¹⁾.

다시 말해 여가 학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여가참여의 제약요인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여가제약을 보다 명확하고 신뢰 있게 조사할 수 있는 연구의 틀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많은

60) 박홍신, “노인여가참여의 제약요인연구”, 한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51.

61) 강석희, “여가활동의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9, p.41.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발표되고 있다.

특히 여가학자들의 주 관심사가 되고 있는 영역은 제약의 개념에 대한 이해 증진, 구속되어지는 여가의 국면에 대한 문제, 장애경험과 관련된 변인들의 분석, 여가제약에 대한 이론적 틀과 모델의 구축, 여가제약 측정과 관련된 항목의 내용과 논의의 범주 등이며 그리고 제약요인의 분석과 측정에 있어서 개선이 함께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흥미부족, 시설, 시간, 비용, 능력, 지식, 기회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되어 왔으나 Jackson은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⁶²⁾.

첫째, 비 참여집단은 오직 두 개의 유형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즉 참여하고 싶으나 참여를 방해하는 여러 장애요인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집단과 참여를 원하지 않는 집단).

둘째, 참여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욕구부족에 대한 설명을 오직 흥미부족이라는 변인 하나로만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흥미부족을 표현하는 모든 개인들은 다른 제약요인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점.

셋째, 제약은 선호와 참여 가운데서 오직 방해만 하는 즉 전형적으로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져왔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즉 여가에 대한 제약은 기술이나 관심부족과 같은 내부적 요인일 수도 있고, 시설이나 프로그램과 같은 외부적 요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여가제약 요인들은 참여에 대한 물질적 장애 예를 들면 비용의 문제 등에만 한정되지 않는다⁶³⁾.

여가제약의 유형을 경제적 요인, 체계전달 요인, 심리적 요인 등으로 분류한 바 있고, 또한 제약의 유형을 시간, 비용, 건강, 사회적 관계의 영역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여가제약 연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 중의 하나는 인간의 여가를 결정짓는 행동에 제약적인 요인이 어떻게 개입됐는가에 대한 복잡한 일련의 모델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발간되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경험적 자료에만 의지하려는 이전의 이론적 연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이며, 이는 여가제약의 구조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론적 토대 위에서 경험적 결과를 해석하려는 희망을 갖게 해주는 사실들이라

62) Jackson, E.L. "Activity-specific barriers to recreation participation" Leisure Sciences 1983.

63) 강석희, "전개서", 1999, p.59.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거 여가제약의 모델이 과정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정적이기 때문에 제약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⁶⁴).

〈그림2-2〉 여가제약의 모델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여가제약의 유형을 한가지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Henderson, K. A., D. Stalnaker, and G. Taylor은 개인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⁶⁵). 그러나 Crawford et al.은 이를 구조적 제약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외에도 개인의 내면적인 그리고 인간 상호간의 제약요인(선행적인 제약요인)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⁶). 즉 이들은 여가제약에 대한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사고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제약요인의 존재 가능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앞의 〈그림 2-2〉에서 개인의 내적인 제약은 여가를 좋아하는 것과 여가에 참여하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보다는 여가를 좋아하는 마음과 상호작용

64) 김유일·강석희, “여가활동참여에 있어서 제약유형의 위계적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 78집, 2000, pp.29-36.

65) Henderson, K. A., D. Stalnaker, and G. Taylor. "the relationship between barriers to recreation and gender-role personality traits for wom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 :1988, p.71.

66) Crawford et al, G.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 9, 1991, p.64.

하는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와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우울, 걱정, 여가활동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이 이에 속하며, 여가선호는 이러한 제약이 없어지거나 타협이 이루어질 때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인적 제약은 각 개인들 간의 인간관계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인들을 의미하며, 개인들은 여가활동에 같이 참여할 친구나 파트너를 찾지 못하게 될 때 대인적 제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과거의 연구에서 주로 관심의 대상이었던 구조적 제약을 접하게 되면 대인적 제약은 극복되어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구조적 제약은 여가 선호와 참여 사이에서 방해물 일으키는 요인으로서 재정적 자원, 시간과 기회의 문제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에 의하면 구조적 제약이 없다면 여가참여는 가능하게 되며, 특히 구조적 제약은 개인의 사회적 특권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⁶⁷⁾.

Crawford et al.에 의하면 기준의 연구들은 대부분 구조적 제약에 관해 조사를 했으며, 연구 대상들은 여가와 관련된 개인의 내적인 그리고 인간 상호간의 제약을 극복한 집단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⁶⁸⁾. 또한 개인의 내적, 인간 상호간의 제약 요인인 선행적 제약의 경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조적 제약을 느끼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결국 구조적 제약에 대한 의견조차 발표할 욕구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행적 제약 요인이 없다면 구조적 제약을 경험하거나 이에 대한 활발한 의사표시를 개진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갖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했던 내적인 제약요인은 잠재적인 여가참여자를 감소시키게 되고, 다른 사람의 기회조차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비슷하게 개인의 구조적 제약인 시간적 여유 등은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안겨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다.

결국 개인의 내적인 제약과 관련된 개인들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여가에 관한 제약 연구의 명백한 개념 부족의 증거라고 하면서, 개인의 내적, 인간상호간, 구조적 제약에 대한 개념은 여가에 대한 제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새로운 지식의 기초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67) 성영호외 2인, “대기업 직장인들의 여가제약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체육과학연구논집 제13집 제2호, 2003, pp.107-120.

68) Crawford et al, “전게서”, Leisure Sciences 9, 1991, p.79.

즉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개인의 내적인 제약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여가활동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매우 적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제약인 인간상호간 혹은 구조적 제약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가제약 극복의 과정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약요인을 극복하면서 참여하게 되는 여가는 제약요인이 없을 때 참여하는 여가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여가참여는 제약의 상실에 의존하기 보다는 제약을 통한 극복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여가참여 제약 요인은 여가불참보다는 변형된 형태의 여가참여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것은 분명하며, 결국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제약요인을 경험하였으며,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였는가는 매우 중요한 관심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제약요인과 여가참여유형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가 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Hultsman⁶⁹⁾은 새로운 활동 참여의 제약요인으로 참여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개인적인 기술부족 등을 들은 반면 Jackson & Dunn⁷⁰⁾은 시설 사용료의 문제는 새로운 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Searle & Brayley⁷¹⁾는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기회부족, 시간부족, 건강악화, 흥미상실 등을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참여비용, 참여 장소의 불확실성, 참여 동반자의 부재, 교통수단의 부족, 충분한 기술 부족 등은 이전에 참여한 활동들을 제약하는 이유보다는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여가제약이란 개인의 여가행동을 ‘제한하는 힘’으로 경험되는 내적인 심리상태나 특성 또는 성격과 외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약은 여가선호와 여가활동 참여의 결정적 요소로서가 아닌 선호와 참여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69) Hultsman, W. Z. Recognizing Pattern of Leisure Constraints: An Extension of the Exploration of Dimensionalit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1995, pp.228-244.

70) Jackson, E.L & E. Dunn. "Integrating ceasing participation with other aspects of leisure behavior."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1988, pp.31-35.

71) Searle and Brayley, "The meaning of alienation." *Sociological Review* 24(3), 1991, pp.102-121.

여가제약을 분류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관련 연구들을 중심으로 여가제약의 분류에 관하여 살펴보면 여가제약을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개념적 분류와 경험적 분류로 나눌 수 있다⁷²⁾.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개념적 분류법은 내적 제약과 외적제약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내적 제약이란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것이고 외적 제약이란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특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적 분류가 유용하기는 하나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준하여 제약을 분류하는 방법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극단적이기도 하다. 이 분류방법을 주장 또는 적용한 연구로서는 Boothby, Franken 과 Van Raaij, Searle 과 Jackson의 연구 등이다. 개념적 분류에 의한 여가제약 유형을 요약하면 <표 2-5> 와 같다.



72) Jackson,E.L. "전개서" Leisure Sciences, 1983, pp.52-60.

〈표 2-5〉 개념적 분류에 의한 여가제약 유형

학 자	제약유형	비 고
Boothby et al	개인적 제약	물리적 능력, 관심
	사회적 제약	시간, 비용, 시설에 대한 접근성
Francken & Van Raaij	내적 제약	개인의 재능, 능력, 지식, 관심
	외적 제약	환경, 시간과 돈의 부족, 거리, 시설 부족
Jackson & Searle	금지적 제약	전적으로 참여를 배제한 것
	억제적 제약	주변환경에 의존하여 보다 많거나 보다 적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 것
Howard and Crompton	동기적 제약	
	물리적 제약	
Crawford and Godbey	인간내적 제약	참여보다는 선호에 영향을 줌
	대인적 제약	선호와 참여에 동시에 영향을 줌
Henderson et al.	구조적 제약	
	간 섭 전 레	레크레이션 기회와 명확하게 관련 개인적 능력, 개성, 흥미와 관련된 태도
Iso-Ahola and Mannell	영구적 제약	
	일시적 제약	

자료: 강석희 “여가활동의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9, p.45에서 재인용

여가활동의 유형을 경험적으로 분류할 때 요인분석 방법이 많이 사용된 것과 같이 여가제약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으로도 이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⁷³⁾. 여가제약의 유형을 경험적으로 분류한 연구로 Henderson et. al은 ‘시간, 돈, 시설결여, 가족의무, 여가가 중요하지 않음, 정보부족, 결정능력부족, 신체 이미지, 흥미부족, 안전상의 이유’의 10개 요인을 도출했다⁷⁴⁾.

McGuire는 ‘외적 자원, 시간, 찬성, 사회적 능력, 물질적 행복’의 5개 요인을 도출했으며, Witt와 Goodale는 가족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설명변수를 가진 제약의 관계 형태에 따라 U형 관계, 역 U형 관계, 정 관계 등 3가지 주요 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⁷⁵⁾.

73) Boothby, J.,M. F. Tungatt, and A. R. Townsend. "Ceasing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y: Reported reasons and their implicati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3:1981, pp.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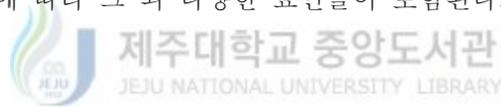
74) Henderson et. al, "Personality traits and leisure barriers among women, Paper presented at the Fifth Canadian Congress on Leisure Researcdh, Dalhousie Univ., Halifax, Nova Scotia, 1987.

이 자료는 여가제약에 기초가 되는 구조가 존재하며, 이 구조가 광범위한 여가제약 항목을 검토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⁷⁵⁾.

경험적 분류는 제약의 유형을 정의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분류하기에 여러 이점이 있으나 다양한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을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경험적 분류에 의한 여가제약 유형을 요약하면 <표2-6>와 같다.

그러나 경험적 분류의 타당성과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구집단에 대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고 척도에 포함된 항목의 수와 유형에서 오는 의존성 때문에 한계가 있다.

결국, 여가제약요인에는 시간, 비용, 능력 등 개인적 제약 요인과 시설, 기회 등 사회적 요인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조사대상이 되는 여가활동의 종류 및 조사대상에 따라 그 외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75) Herbert Witt and Goodale, Modern internal Auditing: appraising operations and Controls, 1982, p.657.

76) McGuire, F.A. "A factor analytic study of leisure constraints in advanced adulthood." Leisure Sciences 6: 1984. pp.313-326.

〈표 2-6〉 경험적 분류에 의한 여가제약 유형

학 자	비 고
Boothby et al.	-이유범주 : 흥미상실, 시설부족, 신체적 제약, 청소년조직에서의 탈퇴·이사, 시간부족
	-조직범주 : 개인 - 신체적 능력, 내적 흥미 사회 - 제약과 사회적 의무의 영향, 시설에 대한 접근의 가도, 사회 네트워크의 상태
Witt and Goodale	- U형 관계
	- 역 U형 관계
	- 정관계
McGuire	- 외적자원, 시간, 승인, 능력(사회적, 신체적), 복지
Hednerson et al	- 시간, 금전, 시설, 가족관련요소, 흥미, 인식문제, 의사결정, 인상, 기술, 사회적부적합성

자료: 강석희(1999), 전제논문에서 재인용.

제 3 절 관련연구의 동향

노인 여가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선행연구에 의하여 여가활동유형과 여러 변인에 따른 여가 활동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rela는 노인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업과 관련된 일, 공적인 일, 정치 등에서 물러나는 대신 동년배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취미·오락 단체 등에 가담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설명하고 있다⁷⁷⁾.

우리나라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가족 중심적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⁷⁸⁾, 박재간은 남녀 노인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학교의 경우에도 여자 노인의 참여비율이 더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⁷⁹⁾.

77) J. E. Trela, Class and Association Membership, An Analysis of Age Guarded and Non-Age-Guarded Voluntary Participation, Journal of Gerontology 31(2), 1976, pp.415-420

78) 송정선, “진계서”, 1996, pp.29-30.

79) 박재간, “노년기 여가생활의 실태와 정책과제”, 노인복지정책연구, 1997, p.31.

연령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의 차이를 살펴본 진영아의 연구에서는 60~64세의 노인은 종교 활동과 사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79세의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사회단체 활동에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70~74세 노인보다 60~69세의 노인층이 여가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⁸⁰⁾.

이상의 결과를 볼 때에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나타났지만, 연령과 성별은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변인들은 여가활동유형과 여가활동 참여수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Settle는 여가활동 참여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교육수준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여가활동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참여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하였다⁸¹⁾. 이러한 결과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교육수준과 여가활동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육을 많이 받은 노인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창조적인 활동, 취미, 오락 활동, 체력관리를 위한 활동, 클럽활동, 정치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독서 활동 등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²⁾.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도 고학력자일수록 스포츠 등 신체 소모적이며 동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참여도에 있어서 적극성을 말해 주는 결과가 된다.

노인의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이영길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기계발활동, 가정 지향활동을 많이 하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일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단체활동, 사교활동 그리고 종교활동에 참여도가 높았으며⁸³⁾ 반면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공원이나 복덕방, 경로당에 가는 등의 소일에 해당하는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정미자의 연구 결과와 유사성을 보였다⁸⁴⁾.

80) 진영아, “노인층의 여가활동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32.

81) R. B. Settle, P. L. Alreck, & M. A. Beck, Social class determinants of Leisure Activity,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6, 1979, pp.289-301.

82) D. K. Hawes, Satisfaction Derived From Leisure Time Pursuits: An Exploratory Nationwide Survey, *Journal of Research* 10, 1978, pp.247-264

83) 이영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p.63-65.

84) 정미자, “광주광역시 노인의 여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p.37-38.

이상의 결과는 노인들의 교육수준이 노인 여가활동에 관련된 많은 여가정보 탐색과 같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고학력자일수록 여가활동 참여의 기회 등에 대한 정보탐색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적극적이고 다양한 여가활동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자원변인으로서 교육수준 뿐 아니라 여가정보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도 여가활동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종교 활동과 사교활동에 좀 더 많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의 부재는 여가활동에 좀 더 많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⁵⁾. 이선미도 노부부 단독세대에서 배우자를 상실하게 되면 가사내동이 크게 변화하게 되고 부부 생활자체도 해체되어 많은 여가시간이 생기게 되므로 여가활동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⁸⁶⁾.

이와 같이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배우자 상실 뿐 아니라 기억상실, 학습능력이 쇠퇴, 직장에서의 은퇴, 친척이나 친구들과의 사별 그리고 자녀들과의 이별 혹은 심리적 갈등 등으로 인한 적응상의 어려움을 가진다. 특히 Parker는 건강상태가 노령기 여가활동의 폭을 넓게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여가참여빈도도 높게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보고하였다⁸⁷⁾. 즉 건강 상태는 여가활동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답한 사람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유형의 활동을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⁸⁸⁾.

김용희에 의하면 건강한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 자신을 유지하고 사회적 생활에 있어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뿐 아니라 사회 심리적인 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나아가 건강은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국면으로 가장 소중한 개인의 자원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⁸⁹⁾. 따라서 노년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이며, 이러한 건강은 노인의 여가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85) R. Larson,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33, 1978, pp.100-108.

86) 이선미, “중·노년기 여가활동 유형과 인생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34.

87) Parker. S, *The Sociology of Leisure*, London George Allen & Bacon, 1979. pp.337-340.

88) Parker. S, *Leisure and Work*, London handbook: 1983, pp.274-275.

89) 김용희, “현대노인의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석사학위논문, 1996, p.31.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를 바로 빈곤노인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장인협·최성재는 남녀 60세 이상의 도시 및 농촌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노인이 응답자 전체의 35%나 된다고 하였다⁹⁰). 즉, 경제적 상황이 좋은 노인이 보다 다양하고 많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활동 장애요인은 여가의식이나 기능, 욕구의 결여가 아니라 여가시설부족과 용돈의 부족이라 하였으며⁹¹), 김광득도 용돈은 가계의 총수입 및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여가활동 참여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맺게 된다고 하였다⁹²).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가시설과 같이 노인을 둘러싼 생활환경은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주변에 여가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동시에 노인들의 거주지도 도심지나 혹은 외곽지나에 따라, 그리고 주변에 노인을 위한 여가 시설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하였다⁹³).

이러한 여가제약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관심으로 그동안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다양한 방법론적 시각의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여가연구에서 여가제약은 연구자들로부터 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어져 왔으며 특별한 주의를 끌어들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기존의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여가 유형과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여 설명 내지는 검증했다고 볼 수 있으며,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가유형이나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대단히 미흡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 제약요인과 여가활동 참여유형 실태를 조사하고, 노인의 여가욕구와 정서에 맞는 노인을 위한 특성화된 여가 활동 참여유형을 알아보려고 한다.

90) 장인협·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pp.238-240.

91) 최은영, "노년기 생활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pp.35-36.

92) 김광득, "현대여가론", 서울: 백산출판사, 1990, pp.151-153.

93) 김용희, "전계서", 대구 효성카톨릭대 석사학위논문, 1996, p.37.

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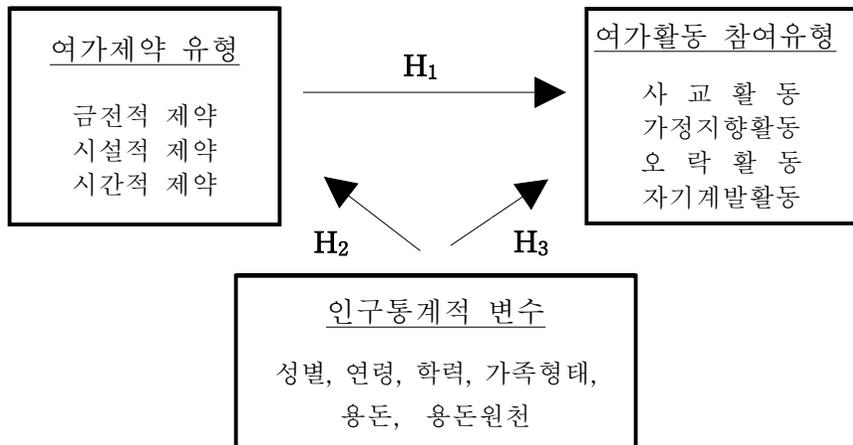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모형은 현상에 관련된 개념들 사이의 가정된 명제를 체계적으로 도식화하여 기존 연구들의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가설을 도출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체계적인 과학적 연구 또는 설명을 위한 분석도구로서 매우 필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의 모형은 제 2 장에서 고찰된 바 있는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유형과 여가제약 및 선행연구동향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여가제약과 여가활동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영희(1997)의 연구와 Henderson(1988)의 연구를 중심으로 여가 제약 요인과 여가활동 참여 유형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이상의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모형을 구성하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여가활동 참여유형과 여가제약을 연결시킨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가활동 참여유형과 여가제약지각에 대한 각각의 분석에서 한걸음씩 나아가 이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그리고 여가제약지각이 여가활동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가설설정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제약요인에 따라 선호하는 여가활동들이 결정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여가제약 요인과 활동들을 파악함으로써 노인들의 환경에 맞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한 가설이다.

둘째, 노인들의 여가제약요인과 인구통계적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가설이다.

셋째, 노인들의 여가활동 유형과 인구통계적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가설이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노인의 여가제약요인에 따라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노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여가제약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노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가설을 정립하고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 및 용어들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사용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은 조작적 의미를 갖는다.

1) 여가제약

여가제약이란 여가활동참여를 제한하는 힘으로서 개인에게 지각되는 개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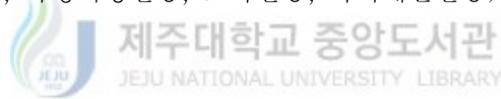
환경적 특성을 의미하며 여가제약 지각정도란 본 연구 질문지에 제시한 10문항의 여가제약 각각에 대하여 응답자가 제약으로서 지각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에 측정 한 후, 제약 유형의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내용에 따라 10개 여가제약문항을 3개 유형(금전적 제약, 시설적 제약, 시간적 제약)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2) 여가활동

여가활동이란 여가시간에 자발적으로 행하는 비 노동활동을 의미하며, 여가활동참여 유형이란 본 연구에서 제시된 20문항의 여가활동 유형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한 후, 참여유형의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내용에 따라 10개 제약 문항을 4개 여가활동 참여유형(사교활동, 가정지향활동, 오락활동, 자기계발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제 2 절 조사설계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자료의 수집과 측정을 위한 조사방법으로 설문지를 사용한 실증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표영희(1997)의 연구와 Henderson(1988)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내용 중 여가활동유형, 여가제약유형에 관련된 설문 문항을 기초로 설문 초안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설문 초안은 예비검사를 통하여 설문내용의 적합성과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다음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고 이를 수정하여 본 조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예비검사의 목적은 설문내용의 적합성 및 설문지 응답 시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문장 및 내용을 파악하는데 있으며 여기서 지적된 사항은 설문지 최종 설문지 작성 시 반영하여 완성하였다.

총 36항으로서 노인의 여가제약에 관한 질문 10문항, 노인의 여가활동참여 유형에 관한 질문 20문항,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관한 6문항을 측정항목으로

도출하였다. 노인의 여가제약의 10문항과 노인의 여가활동참여 유형의 20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인구통계적 변수에 대한 질문 즉 성별, 연령, 학력, 가족형태, 용돈의 설문문항은 서열, 명목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표 3-1> 설문의 구성

조사내용	문항	설문항목	척도
여가 제약	10	1~10	등간(Likert 5점 척도)
여가활동참여 유형	20	11~30	등간(Likert 5점 척도)
인구통계적 특성	6	31~36	서열, 명목척도

2. 표본추출과 자료수집

1) 표본추출

현대적 의미의 여가란 산업사회의 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범위를 우선 도시를 선정하였다. 노인은 65세 이상의 제주시내에 거주하는 노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표집설계를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지역은 제주시내 전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이 노인 여가제약이 여가활동참여 유형과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 것이니 만큼 모든 노인들이 대상이 될 수 있었겠지만 본 논문은 제주시내 65세 이상 노인으로 제한하였다.

셋째, 설문조사에 임하는 조사원들은 제주시내에 거주하는 관광경영학과 3학년들로 구성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문지에 관하여 숙지하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본인도 직접 같이 참여하여 문항을 읽어드리고 설문을 받았다.

넷째, 설문조사는 제주시 노인정을 중심으로 시점은 2006년 4월 0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간 편의 표본추출하여 총 250부 중 225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부실하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21부를 제외한 유효표본 204부를 확정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2) 자료의 수집

(1) 예비조사

연구내용에 관한 탐색적 목적에서 2006년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여가활동참여 유형과 여가제약 항목을 삽입하고 이들 항목 중 응답분포가 높은 문항을 채택 하였다.

(2) 본 조사

2006년 4월 0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간 조사자들이 직접 면접하였고, 응답자가 직접 기재할 수 있다면 질문지를 배부한 후 기다리거나 다시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에 의해서 얻어진 자료는 사회과학 통계패키지인 SPSS WIN 10.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연구내용별 통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적 변수, 여가활동참여 유형 및 여가제약 지각정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포 및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에 이용하였다.

둘째, 조사대상 변수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변수에 대해 제거하였다.

셋째, 신뢰도분석 후 신뢰성을 입증 받은 변수들의 여가활동참여 유형과 여가제약 유형을 알아보고자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유형별로 나누었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여가활동참여 유형 및 제약'과의 세부항목별 분석함으로써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석(One-Way ANOVA)을 하였다.

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표본의 특성

본 실증분석에 이용한 자료의 사례수는 총 204개인데 이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성별로 남성응답자가 52.0%로 여성응답자 48.0% 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70세~75세 미만의 응답자가 4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65세~70세 미만의 응답자가 30.9%, 75세 이상의 응답자가 26.0% 차지하였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전체응답자의 40.2%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였고 반면 대졸이상인 응답자도 35.3%로 상당히 높은 구성비를 보였으며 중졸이하가 24.5% 차지하였다.

응답자들의 현재 가족형태는 부부끼리 살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2.5%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24.5% 독신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8.1% 기타가 4.9%의 구성비를 보였으며 용돈별로는 월평균 10~2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7.9%로 가장 많았고 반면 10~20만원 미만인 응답자도 26.5%의 구성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10만원 미만과 40~50만원 미만인 경우가 15.7% 30~40미만이 14.2%를 차지하였다.

용돈원천별로는 자녀들로부터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29.9%로 가장 많았고 스스로 번다와 연금이나 퇴직금을 활용한다, 배우자의 소득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22.5%, 21.1%, 15.7%를 차지하였고 반면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10.8% 차지하였다.

<표 4-1>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의한 표본의 특성

특 성	내 용	빈 도(명)	비 율(%)
성별	남성	106	52.0
	여성	98	48.0
연령	65세 이상~70세미만	63	30.9
	70세 이상~75세미만	88	43.1
	75세 이상	53	26.0
학력	중졸이하	50	24.5
	고졸	82	40.2
	대졸 이상	72	35.3
가족형태	독신	37	18.1
	부부	107	52.5
	자녀 가족	50	24.5
	기타	10	4.9
월평균 용돈	10만원 미만	32	15.7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54	26.5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57	27.9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29	14.2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32	15.7
용돈원천	스스로	46	22.5
	배우자의 소득	32	15.7
	자녀들로부터	61	29.9
	연금이나 퇴직금 활용	43	21.1
	정부의 보조금	22	10.8
전 체		204	100

제 2 절 분석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신뢰성은 유사한 측정도구 혹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개념을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즉 신뢰성은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정확성, 의존가능성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내적 일관성의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각 항목이 전체 신뢰도에 공헌하는 정보를 평가하여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사전조사를 통하여 신뢰도가 낮은 항목을 삭제한 뒤에 본 조사를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할 때에 이용되기도 하며 조사가 끝난 뒤에 신뢰도가 낮은 항목을 분석에서 제외시킬 때도 이용될 수 있다.

Nunnally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탐색적인 연구분야에서는 alpha 계수가 0.60 이상이면 충분하고, 기초연구분야에서는 0.80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응용연구 분야에서는 0.90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⁴⁾.

한편 요인분석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끼리 동질적인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주는 통계기법으로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에 이용되는 분석기법인데, 요인분석에서 요인을 추출할 때에는 이론적 연구나, 분석결과 나타나는 공통성(communality), 고유치(eigenvalue)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총분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공통성은 0.4이상이고 고유치는 1이상이며 분산이 높을수록 정보손실은 적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치 1을 기준으로 요인 분석한 결과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이 클수록 그 요인이 전체 요인구성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총분산 설명력은 이들 여가활동 제약(장애) 유형 4개요인과 관련한 총분산이 80.931%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는 여가활동 제약(장애) 유형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분석한 표인데 전체 신뢰도는 0.8676이며, 제1요인은 0.8673, 제2요인은 0.7411이고, 제3요인은 0.6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

94) J. C. Nunnally, *Psychometric Theory*, Second Editin, McGraw-Hill, 1978, p.225.

<표 4-2> 여가활동 제약요인의 신뢰성 및 타당성

요인구성변수	Alpha값 및 요인부하량 (Total α =.8676)			공통성
	1 금전적 제약 α =.8673	2 시설적 제약 α =.7411	3 시간적 제약 α =.5704	
v01 돈이 없어서	0.940			0.896
v02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0.896			0.878
v09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0.902		0.827
v07 가까운 곳에 시설·장소가 부족해서		0.841		0.777
v08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0.848	0.744
v05 가족들의 협조와 이해가 부족해서			0.842	0.735
고유치(Eigen Value)	2.457	1.274	1.125	-
분산	40.956	21.232	18.743	-
KMO and Bartlett's Test	KMO=0.598 Chi=368(d.f.=15, p=0.000)			

각 변수의 변량 중 분석에 포함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공통분산의 비율인 공통성은 최저 0.735에서 최고 0.8961을 나타내, 공통성도 모두 0.7 이상이고 요인별 고유치(eigenvalue)는 최저 1.125으로 모두 1이상의 고유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표본추출 적합검증 척도인 KMO (Kaiser-Meyer-Olkin)의 값이 0.598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본 요인분석에 이용한 변수들에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 요인별 구성변수는 <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제1요인은 금전적 제약요인으로, 제2요인은 시설적 제약요인, 제3요인은 시간적 제약요인으로 각각 여가활동의 제약요인 유형을 구분하였다.

한편 <표 4-3>는 여가활동 유형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분석한 표인테 전체 신뢰도는 0.8902이며, 제1요인은 0.8815, 제2요인은 0.6971이고, 제3요인은 0.8855, 제4요인은 0.7415로 나타났으며, 각 변수의 변량 중 분석에 포함된 요

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공통분산의 비율인 공통성은 최저 0.531에서 최고 0.915를 나타내, 공통성도 모두 0.5 이상이고 요인별 고유치(eigenvalue)는 최저 1.098로 모두 1이상의 고유치를 가지고 있다.

<표 4-3> 여가활동 요인의 신뢰성 및 타당성

요인구성변수	Alpha값 및 요인부하량 (Total α =.8902)				공통성
	1 사 교 활 동 α =.8815	2 가정지향 활동 α =.6971	3 오 락 활 동 α =.8855	4 자기계발 활동 α =.7415	
v016 사회참여 활동(계몽·청소년 선도)	.953				.915
v015 정치적 각종 정당활동	.951				.914
v018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참여	.720				.766
v014 사회봉사활동(자원봉사, 후원회 활동)	.656				.637
v011 커피숍, 노래방 가기		.765			.698
v012 시장가기, 쇼핑		.739			.735
v002 학습활동(교양강좌, 노인학교 등)		.645			.628
v008 가족동반, 외식이나 외출		.609			.531
v019 경로당, 노인회관 참여			.930		.888
v017 놀이 오락(장기, 바둑, 화투, 카드 등)			.913		.854
v003 신문, 잡지, 독서활동				.821	.775
v004 서예, 미술, 음악감상, 다도				.735	.771
v001 컴퓨터(인터넷, 통신)				.616	.695
고유치(Eigen Value)	4.721	2.444	1.544	1.098	-
분산	36.315	18.797	11.880	8.446	-
KMO and Bartlett's Test	KMO=0.786 Chi=1583(d.f.=78, p=0.000)				

또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표본추출 적합검증 척도인 KMO (Kaiser-Meyer-Olkin)의 값이 0.786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유의

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본 요인분석에 이용한 변수들에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 요인별 구성변수는 <표 4-3>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제1요인은 사교활동요인으로, 제2요인은 가정지향활동 요인, 제3요인은 오락활동 요인, 제4요인은 자기계발활동 요인으로 각각 여가활동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제 3 절 가설검증

1. 가설 1의 검증

가설 1. 노인의 여가제약요인에 따라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은 제주시내 65세 이상 노인들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제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의 분석을 위해서 여가제약 3개의 요인 각각을 K-평균 군집분석(K-mean Cluster Analysis)을 이용해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여가제약 제1요인(금전적 제약)을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고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금전적 제약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은 53명, 중간 수준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44명, 낮게 인식하는 집단은 107명으로 분류되었다.

<표 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전적 제약 유형에 따라 여가활동의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교활동($p < 0.01$)의 경우 금전적 제약 저인식 집단이 평균 2.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인식 집단이 평균 1.56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사후 검증 결과 저인식 집단과 다른집단(중간인식 집단과 고인식 집단간)에는 차이가 있으나, 중간인식 집단과 고인식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가정지향활동($p < 0.01$)은 금전적 제약 저인식 집단이 평균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인식 집단이 평균 2.01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사후 검증 결과 세 집단간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활동($p < 0.05$)은 금전적 제약 고인식 집단이 평균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인식 집단이 평균 2.94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사후 검증 결과 고인식 집단과 저인식 집단간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고인식 집단과 중인식 집단간, 그리고 중인식 집단과 고인식 집단간은 차이가 없었다.

자기계발활동($p < 0.01$)은 금전적 제약 저인식 집단이 평균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인식 집단이 평균 2.20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사후 검증 결과 세 집단간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금전적 제약에 따른 여가활동참여 차이 분석

여가활동참여	구분		F	p
	금전적 제약	평균		
사교활동	저(n=107)	2.52	30.472	.000***
	중(n=44)	1.59		
	고(n=53)	1.56		
가정지향활동	저(n=107)	3.12	44.985	.000***
	중(n=44)	2.55		
	고(n=53)	2.01		
오락활동	저(n=107)	2.94	4.460	.013**
	중(n=44)	3.39		
	고(n=53)	3.53		
자기계발활동	저(n=107)	3.36	45.935	.000***
	중(n=44)	2.55		
	고(n=53)	2.20		

주) ** $p < 0.05$ *** $p < 0.01$

둘째, 여가제약 제2요인(시설적 제약)을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고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적 제약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은 105명, 중간

수준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61명, 낮게 인식하는 집단은 38명으로 분류되었다.

<표 4-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설적 제약 유형에 따라 사교활동, 가정지향활동, 자기계발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오락활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5> 시설적 제약에 따른 여가활동참여 차이 분석

구분		평균	F	p
여가활동참여	시설적 제약			
사교활동	저(n=38)	1.63	5.016	.007***
	중(n=61)	2.11		
	고(n=105)	2.20		
가정지향활동	저(n=38)	2.96	15.543	.000***
	중(n=61)	2.63		
	고(n=105)	2.14		
오락활동	저(n=38)	3.16	0.284	.753
	중(n=61)	3.10		
	고(n=105)	3.25		
자기계발활동	저(n=38)	2.43	7.133	.001***
	중(n=61)	2.85		
	고(n=105)	3.06		

주) **p<0.05 ***p<0.01

먼저 사교활동(p<0.01)의 경우 시설적 제약 고인식 집단이 평균 2.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인식 집단이 평균 1.63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사후 검증 결과 저인식 집단과 다른집단(고인식 집단과 중간인식 집단)간은 차이가 있으나 고인식 집단과 중간인식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가정지향활동(p<0.01)은 시설적 제약 고인식 집단이 평균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인식 집단이 평균 2.14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사후 검증 결과 세집단간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활동(p<0.01)은 시설적 제약 고인식 집단이 평균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인식 집단이 평균 2.43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사후 검증 결과 저인식 집단과 다른 집단(고인식 집단과 중간인식 집단)간은 차이가 있으나 고인식 집단과 중간인식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응답자 중 105명(51%)가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시설적 제약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시설적 제약으로 인해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노인들의 거주지가 도심지나 혹은 외곽지나에 따라 또는 주변에 노인을 위한 여가 시설이 있는가의 여부에 의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여가제약 제3요인(시간적 제약)을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고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간적 제약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은 10명, 중간 수준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31명, 낮게 인식하는 집단은 163명으로 분류되었다.

<표 4-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간적 제약 유형에 따라 여가활동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교활동($p < 0.05$)의 경우 시간적 제약 집단별 저인식 집단이 평균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인식 집단이 평균 1.43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사후 검증 결과 저인식 집단과 고인식 집단 간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고인식 집단과 중인식 집단간, 그리고 중인식 집단과 고인식 집단 간은 차이가 없었다.

가정지향활동($p < 0.01$)은 금전적 제약 저인식 집단이 평균 2.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인식 집단이 평균 2.40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하지만 사후 검증 결과 세 집단이 하나의 집단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차이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6> 시간적 제약에 따른 여가활동참여 차이 분석

구분		평균	F	p
여가활동참여	시간적 제약			
사교활동	저(n=163)	2.15	3.631	.028**
	중(n=31)	1.85		
	고(n=10)	1.43		
가정지향활동	저(n=163)	2.80	5.221	.006***
	중(n=31)	2.31		
	고(n=10)	2.40		
오락활동	저(n=163)	3.35	7.238	.001***
	중(n=31)	2.63		
	고(n=10)	2.25		
자기계발활동	저(n=163)	3.05	16.563	.000***
	중(n=31)	2.20		
	고(n=10)	2.17		

주) **p<0.05 ***p<0.01

오락활동(p<0.01)은 시간적 제약 저인식 집단이 평균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인식 집단이 평균 2.25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사후 검증 결과 저인식 집단과 고인식 집단간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고인식 집단과 중인식 집단간, 그리고 중인식 집단과 고인식 집단 간은 차이가 없었다.

자기계발활동(p<0.01)은 시간적 제약 저인식 집단이 평균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인식 집단이 평균 2.17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사후 검증 결과 저인식 집단과 다른 집단(중간인식 집단과 고인식 집단간)에는 차이가 있으나, 중간인식 집단과 고인식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2. 가설 2의 검증

가설 2는 노인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여가제약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가설검증에 이용한 인구 통계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가족형태, 월평균용돈, 용돈원천 등 6개 변수이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 분석

성별을 기준으로 여가제약의 차이를 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4-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설적 제약이 성별에 대하여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금전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제주시내 65세 이상 노인들은 여가활동참여에 있어 남자 응답자들(3.87)이 여자응답자들(3.55)보다 시설적 제약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실증연구와 같이 여자노인들은 남자노인보다 가족 중심적 여가 활동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설적인 제약을 낮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7> 성별에 따른 여가제약 유형 차이 검증

요인	성별	평균	T값	유의확률
금전적 요인	남	2.85	1.610	.109
	여	2.59		
시설적 요인	남	3.87	2.241	.026**
	여	3.55		
시간적 요인	남	2.00	-1.693	.092
	여	2.21		

주) ** $p < 0.05$ *** $p < 0.01$

2) 연령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 분석

연령에 따라 여가제약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8>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시설적 제약($p < 0.01$)을 보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75세 이상 집단과 다른 집단(70세~75세 미만과 65세~70세 미만 집단)간에 차이가 있으나, 70세~75세 미만 집단과 65세~70세 미만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시간적 제약($p < 0.05$)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65세~70세 미만 집단과 75세 이상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65세~70세 미만 집단과 70세~75세 미만 집단 간, 그리고 70세~75세 미만 집단과 75세 이상 집단 간은 차이가 없었다.

노인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가활동에 있어 시간이 제약요인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설적 제약 요인은 연령이 적을수록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75세 이상의 노인들보다 그 보다 적은 노인층들이 여가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8> 연령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 분석

구분		평균	F	p
여가제약요인	연령			
금전적 요인	65세이상~70세미만	2.91	2.011	.136
	70세이상~75세미만	2.54		
	75세 이상	2.81		
시설적 요인	65세이상~70세미만	3.71	6.814	.001**
	70세이상~75세미만	3.97		
	75세 이상	3.32		
시간적 요인	65세이상~70세미만	2.32	3.440	.034**
	70세이상~75세미만	2.07		
	75세 이상	1.90		

주) ** $p < 0.05$ *** $p < 0.01$

3) 학력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 분석

학력에 따라 여가제약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9>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우선 시설적 제약($p < 0.01$)을 보면 대졸이상 집단에서 평균 4.15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고, 중졸이하 집단에서 평균 3.2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대졸이상 집단과 다른 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으나 고졸집단과 중졸이하 집단 간은 차이가 없었다.

시간적 제약($p < 0.01$)은 대졸 이상 집단에서 평균 2.36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고, 중졸이하 집단에서 평균 1.9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대졸이상 집단과 다른 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으나 고졸집단과 중졸이하 집단 간은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기개발활동 등과 같은 동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낮을수록 소일활동을 많이 한다는 기존의 실증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고학력일수록 여가활동에 있어 시설적 제약 요인을 많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9> 학력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 분석

구분		평균	F	p
여가제약요인	학력			
금전적 요인	중졸이하	2.74	1.991	.139
	고졸	2.54		
	대졸이상	2.92		
시설적 요인	중졸이하	3.28	12.338	.000***
	고졸	3.61		
	대졸이상	4.15		
시간적 요인	중졸이하	1.91	5.140	.007***
	고졸	1.99		
	대졸이상	2.36		

주) ** $p < 0.05$ *** $p < 0.01$

4) 가족형태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 분석

가족형태에 따라 여가제약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금전적 제약($p<0.05$)을 보면 기타 집단에서 평균 3.15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고 부부 집단에서 평균 2.49로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사후 검증 결과 세 집단이 하나의 집단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차이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시설적 제약($p<0.01$)은 부부 집단에서 평균 4.11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고 기타 집단에서 평균 2.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간적 제약($p<0.01$)은 기타 집단에서 평균 4.50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고 독신 집단에서 평균 1.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네 집단 간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도 여가활동에 있어서 제약 요인별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배우자 및 자녀와 가족이 함께 사는 가족 형태에서 다양한 활동에 더 많이 참여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신 및 기타 가족 형태보다는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하는 노인들에 있어서 여가생활을 하는데 있어 시설적 제약 요인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0> 가족형태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 분석

구분		평균	F	p
여가제약요인	가족형태			
금전적 요인	독신	2.93	3.107	.028**
	부부	2.49		
	자녀가족	2.99		
	기타	3.15		
시설적 요인	독신	3.12	15.397	.000***
	부부	4.11		
	자녀가족	3.52		
	기타	2.75		
시간적 요인	독신	1.15	421.700	.000***
	부부	1.80		
	자녀가족	2.96		
	기타	4.50		

주) ** $p<0.05$ *** $p<0.01$

5) 월평균용돈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 분석

월평균용돈에 따라 여가제약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4-11> 월평균용돈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 분석

구분		평균	F	p
여가제약요인	월평균용돈			
금전적 요인	10만원 미만	2.61	1.194	.315
	10~20만원 미만	2.77		
	20~30만원 미만	2.61		
	30~40만원 미만	3.14		
	40만원 이상	2.59		
시설적 요인	10만원 미만	3.11	7.071	.000***
	10~20만원 미만	3.56		
	20~30만원 미만	3.75		
	30~40만원 미만	3.97		
	40만원 이상	4.33		
시간적 요인	10만원 미만	1.50	4.833	.001***
	10~20만원 미만	2.22		
	20~30만원 미만	2.15		
	30~40만원 미만	2.24		
	40만원 이상	2.28		

주) **p<0.05 ***p<0.01

우선 시설적 제약(p<0.01)을 보면 40만원 이상 집단에서 평균 4.33으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고, 10만원 미만 집단에서 평균 3.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40만원 이상 집단과 10만원 미만 집단 간은 차이가 있으나, 40만원 이상 집단과 30-40만원 미만 집단, 그리고 30-40만원 집단, 20-30만원 미만 집단과 10-20만원 미만 집단 간에도 차이가 없었다.

시간적 제약(p<0.01)은 40만원 이상 집단에서 평균 2.28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고, 10만원 미만 집단이 평균 1.5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10만원 미만 집단과 다른 네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6) 용돈원천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 분석

용돈원천에 따라 여가제약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12>에 나타난 바다.

<표 4-12> 용돈원천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 분석

구분		평균	F	p
여가제약요인	용돈원천			
금전적 요인	스스로	2.74	.631	.641
	배우자의소득	2.55		
	자녀들로부터	2.71		
	연금/퇴직금	2.94		
	정부보조금	2.57		
시설적 요인	스스로	3.86	5.899	.000***
	배우자의소득	3.81		
	자녀들로부터	3.45		
	연금/퇴직금	4.19		
	정부보조금	3.11		
시간적 요인	스스로	2.35	10.788	.000***
	배우자의소득	2.13		
	자녀들로부터	2.39		
	연금/퇴직금	1.88		
	정부보조금	1.18		

주) **p<0.05 ***p<0.01

우선 시설적 제약(p<0.01)을 보면 연금/퇴직금을 활용하는 집단이 평균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집단에서 평균 3.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연금/퇴직금을 활용하는 집단과 정부보조금 집단간에 차이가 있으나, 연금/퇴직금을 활용하는 집단, 스스로 해결하는 집단과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하는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받는 집단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집단간에도 차이가 없었다.

시간적 제약($p < 0.01$)은 자녀들로부터 받는 집단에서 평균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집단이 평균 1.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자녀들로부터 받는 집단과 스스로 해결하는 집단과 연금/퇴직금을 활용하는 집단,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집단간에 차이가 있으나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하는 집단과 자녀들로부터 받는 집단, 스스로 해결하는 집단간은 차이가 없었다.

용돈은 가계의 총수입 및 생활수준과 관련이 있어 여가활동 참여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노인들의 월 평균 용돈과 용돈의 원천은 여가활동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월 평균 용돈이 많은 노인일수록 시설적 제약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설 3의 검증

가설3은 노인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가설검증에 이용한 인구 통계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가족형태, 월평균용돈, 용돈원천 등 6개 변수이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 차이 분석

성별을 기준으로 여가활동 참여유형 차이를 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4-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가활동참여 유형 4요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13>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 차이 분석

여가활동참여 유형	성별	평균	T값	유의확률
사교활동	남	1.99	-1.164	.246
	여	2.15		
가정지향활동	남	2.74	.562	.575
	여	2.67		
오락활동	남	3.33	1.682	.94
	여	3.03		
자기계발활동	남	2.80	-1.326	.186
	여	2.97		

2) 연령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 차이 분석

연령에 따라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가활동참여 유형 4요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14> 연령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 차이 분석

구분		평균	F	p
여가활동참여유형	연령			
사교활동	65세이상-70세미만	2.16	.933	.395
	70세이상-75미만	2.05		
	75세 이상	2.16		
가정지향활동	65세이상-70세미만	2.83	1.354	.260
	70세이상-75미만	2.71		
	75세 이상	2.57		
오락활동	65세이상-70세미만	3.29	.460	.632
	70세이상-75미만	3.24		
	75세 이상	3.09		
자기계발활동	65세이상-70세미만	2.97	.925	.398
	70세이상-75미만	2.84		
	75세 이상	2.77		

3) 학력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 차이 분석

학력에 따라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가활동참여 유형 4요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15> 학력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 차이 분석

구분		평균	F	p
여가활동참여유형	학력			
사교활동	중졸이하	2.07	.532	.588
	고졸	2.15		
	대졸이상	1.98		
가정지향활동	중졸이하	2.59	1.445	.238
	고졸	2.67		
	대졸이상	2.84		
오락활동	중졸이하	3.32	1.368	.257
	고졸	3.01		
	대졸이상	3.31		
자기계발활동	중졸이하	2.90	.504	.605
	고졸	2.94		
	대졸이상	2.80		

4) 가족형태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 차이 분석

가족형태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참여 유형 4요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4-16> 가족형태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 차이 분석

구분		평균	F	p
여가활동참여유형	가족형태			
사교활동	독신	2.18	2.696	.047**
	부부	2.18		
	자녀가족	1.89		
	기타	1.43		
가정지향활동	독신	2.52	4.050	.008***
	부부	2.90		
	자녀가족	2.50		
	기타	2.40		
오락활동	독신	3.03	2.943	.034**
	부부	3.38		
	자녀가족	3.08		
	기타	2.25		
자기계발활동	독신	3.11	9.900	.000***
	부부	3.08		
	자녀가족	2.42		
	기타	2.17		

주) **p<0.05 ***p<0.01

먼저 사교활동(p<0.05)을 보면 부부 집단에서 평균 2.18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고 기타 집단에서 평균 1.4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부부 집단, 독신자 집단과 기타 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가정지향활동(p<0.01)은 부부 집단에서 평균 2.90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고 기타 집단에서 평균 2.4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부부집단과 기타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오락활동(p<0.05)은 부부 집단에서 평균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 집단에서 평균 2.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기타 집단과 다른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자기계발활동(p<0.01)은 독신자 집단이 평균 3.11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고 기타 집단에서 평균 2.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독신자 집단, 부부 집단과 자녀가족 집단, 기타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5) 월평균용돈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 차이 분석

월평균용돈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가활동 참여유형 4요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17> 월평균용돈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 차이 분석

구분		평균	F	p
여가활동참여유형	월평균용돈			
사교활동	10만원 미만	2.27	.847	.497
	10-20만원 미만	2.11		
	20-30만원 미만	2.00		
	30-40만원 미만	1.84		
	40-50만원 미만	2.13		
가정지향활동	10만원 미만	2.53	1.671	.158
	10-20만원 미만	2.56		
	20-30만원 미만	2.84		
	30-40만원 미만	2.68		
	40-50만원 미만	2.93		
오락활동	10만원 미만	3.19	.962	.429
	10-20만원 미만	3.15		
	20-30만원 미만	2.98		
	30-40만원 미만	3.53		
	40-50만원 미만	3.31		
자기계발활동	10만원 미만	2.92	.172	.953
	10-20만원 미만	2.87		
	20-30만원 미만	2.91		
	30-40만원 미만	2.76		
	40-50만원 미만	2.93		

6) 용돈원천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 차이 분석

용돈원천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가활동 참여유형 4요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18> 용돈원천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 차이 분석

구분		평균	F	p
여가활동참여유형	용돈원천			
사교활동	스스로	1.91	1.323	.263
	배우자의소득	2.32		
	자녀들로부터	2.00		
	연금/퇴직금	2.02		
	정부보조금	2.33		
가정지향활동	스스로	2.96	1.563	.186
	배우자의소득	2.66		
	자녀들로부터	2.61		
	연금/퇴직금	2.72		
	정부보조금	2.52		
오락활동	스스로	3.30	1.054	.380
	배우자의소득	3.27		
	자녀들로부터	2.91		
	연금/퇴직금	3.37		
	정부보조금	3.25		
자기계발활동	스스로	2.82	.503	.733
	배우자의소득	2.96		
	자녀들로부터	2.83		
	연금/퇴직금	2.85		
	정부보조금	3.11		

제 4 절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1) 노인의 여가제약요인에 따른 여가활동유형 차이 분석

첫째, 금전적 제약에 따른 여가활동유형 차이 분석 결과 4개의 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활동, 가정지향활동, 자기계발활동은 금전적 제약 저인식 집단이 자주 하고 있으며, 오락활동은 금전적 제약 고인식 집단이 자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시설적제약에 따른 여가활동유형 차이 분석 결과 사교활동, 가정지향활동, 자기계발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적 제약 고인식 집단이 사교활동, 가정지향활동, 자기계발활동을 자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시간적제약에 따른 여가활동유형 차이 분석 결과 4개의 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적 제약 저인식 집단일수록 여가활동을 자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노인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여가제약 요인 차이 분석

첫째, 성별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 분석 결과 시설적 제약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응답자들이 여자응답자들 보다 시설적 제약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연령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 분석 결과 시설적 제약, 시간적 제약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5세 이상 집단에서 시설적, 시간적 제약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학력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 분석 결과 시설적 제약, 시간적 제약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 집단에서 시설적, 시간적 제약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종교와 직업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 분석 결과 제약요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가족형태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 분석 결과 제약요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전적 제약은 부부 집단에서 낮게 인식하고 있지만, 사후 검증 결과 세 집단이 하나의 집단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차이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시설적 제약은 부부 집단에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시간적 제약은 독신 집단에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곱째, 월평균용돈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 분석 결과 시설적 제약, 시간적 제약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만원 이상 집단에서 시설적, 시간적 제약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덟째, 용돈원천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 분석 결과 시설적 제약, 시간적 제약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적 제약은 연금/퇴직금을 활용하는 집단이 높게 인식하고 있고, 시간적 제약은 자녀들로부터 받는 집단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노인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유형 차이 분석

첫째, 성별, 연령, 학력 및 종교, 월평균용돈, 용돈원천에 따른 여가활동유형 차이 분석 결과 여가활동 4요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 차이 분석 결과 오락활동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형태에 따른 여가활동유형 차이 분석 결과 4요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활동, 가정지향활동, 오락활동은 부부 집단에서 자주 하고, 자기개발활동은 독신자 집단이 자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9> 가설검증 결과 종합

구 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채택여부
-----	------	------	------

가설 1 : 여가제약 요인에 따라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금전적 제약	사교활동	채택
시설적 제약	가정지향활동	채택
시간적 제약	오락활동	채택
	자기계발활동	채택

가설 2 :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여가제약 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 별		부분 채택
연 령		부분 채택
학 력	금전적 제약	부분 채택
가족형태	시설적 제약	채택
	시간적 제약	채택
월평균용돈		부분 채택
용돈원천		부분 채택

가설 3 :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여가활동 참여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 별		기각
연 령	사교활동	기각
학 력	가정지향활동	기각
가족형태	오락활동	채택
월평균용돈	자기계발활동	기각
용돈원천		기각

제 5 장 결 론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전반적으로 노년기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경제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여가활동을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약화와 사회, 경제활동으로부터 이탈을 겪게 되는 노인들에게 여가활동은 노년기 삶을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현 시점에서 노인들을 위한 여가욕구에 대응할 정책적 대비책을 마련하여 향후 전개될 여가사회에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생활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가제약 및 여가활동참여 유형과 관련된 이론적 고찰과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여가제약과 여가활동유형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 제주시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표본추출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일원분산분석, 군집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여가제약 유형 및 여가활동참여 유형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가제약에 대한 구성변수는 금전적 제약, 시설적 제약, 시간적 제약과 같이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구성변수는 사교활동, 가정지향활동, 오락활동, 자기계발활동과 같이 4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노인의 여가활동참여 유형은 여가제약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을 검증 결과 금전적 제약에 따른 여가활동참여 유형 4개의 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적 제약에 따라서는 사교활동, 가정지향활동, 자기계발활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오락활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적 제약에 따라서는 4개의

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여가제약 유형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2를 검증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시설적 제약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과 학력 그리고 월평균 용돈 및 용돈 원천에 따라서는 시설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 요인이 유의한 차이인 반면 금전적 제약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교와 직업에 따라서는 제약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제약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사후검증결과 모든 집단이 하나의 집단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차이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노인의 여가활동참여 유형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2를 검증 결과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월평균 용돈, 용돈 원천에 따라서는 여가활동참여 4요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직업에 따라서는 오락활동 요인이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4개의 요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문제점들과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기회가 평준화되어야 한다. 노인의 여가생활에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여가 기회가 평준화되어 있지 못하기도 하다.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금전적 제약에 의해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참여가 금전적 요인에 의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령, 성별, 건강, 경제능력, 교육의 정도 등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여가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에서 여가시설이나 여가 프로그램을 노인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는 여가 시설 확충 및 전문 인력 확보를 해야 한다. 도시마다 노인정이나 노인학교 등의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노인들의 여가 시설을 보면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여가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노인정이나 노인학교는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용하는 시설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고, 사회복지관등도 창의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던가 노인들의 여가 욕구를 조사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가 시설을 확충하거나, 전문 인력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의 노인들이 지역사회 여가시설을 활용할 것이다.

셋째, 노인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들에게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비용부담 등의 어려움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적 부조 형태로 시행중인 경로연금제도 등을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확대 실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어야 한다. 또한 노인들에게 부업이나 시간제 혹은 비정규적인 일거리를 제공하여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년기의 여가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취미나 오락 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인들은 여가를 통해 개인적·사회적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노년기의 여가는 봉사활동·교육·문화적 활동 등 생활의 전반적인 측면도 포함해야 한다.

특히 노년기 여가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에 있어 노인생활 전반에 대해 고려되어야 하며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 및 노인들이 처한 여건 등이 명확히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도 점점 노령화 사회가 앞당겨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노인들의 여가에 대한 중요성이 높게 인식됨에 따라 전국 단위의 조사와 함께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제약 요인과 여가활동유형, 그리고 이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추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실제로 적용하여 보다 의미 있는 노년기의 여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개인, 지방정부, 중앙정부,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별로 보다 철저하게 노인 여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의 복지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국내서적

- 김광득, 「여가와 현대사회」, 서울: 백산출판사, 1997.
- 김광득, 「현대여가론」, 서울: 백산출판사, 1990.
- 김예련·한내창,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여가활동이 생애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1997.
- 김익기 외, “한국 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센터, 1999.
- 박용범, 김학신, “노인여가활동의 발전방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 20호, 2003.
- 박재간, “노년기 여가생활의 실태와 정책과제”, 노인복지정책연구, 1997.
- 신현주·박시범, “라이프스타일과 레저활동유형간의 상관성 연구”, 관광학회지, 1999.
- 원영희, “고령화 사회와 노인여가”, 사회복지협의회: 계간사회복지 통권 제 148호. 2001.
- 윤진,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적성출판사, 1998.
- 임호남·박준석, “가족생활주기와 여가활동 장애요인에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1997.
- 장인협·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 조선일보, 2002. 11.1. 10면.
- 조성남 외, “고령화 사회와 중산층 노인의 사회활동” 서울: 집문당, 1998.
- 중앙일보, 2000년 7월 11일자 4면.
- 한국노년학회편, 「노년학의 이해」, 도서출판 동인, 1996.
-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노인문헌목록」, 서울: 홍익, 199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고령화의 국제동향과 경제사회적 의미”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6호, 1998.

2) 국내논문

- 김성연, “도시노인의 여가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외숙, “도시기혼 여성의 여가장애지각과 여가활동참여와의 관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 김용희, “현대노인의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 대구 효성카톨릭대 석사학위논문, 1996.
- 박용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유형에 따른 여가동기 및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 석미란,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대구시내거주 노인들의 여가 및 관광 성향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송정선,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우제경, “노인의 여가활동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이선미, “중·노년기 여가활동 유형과 인생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이영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중석, “서울시 저소득층 노인의 여가실태와 활성화 방안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영실, “노인들의 여가활동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영애,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행정 대학원, 1997.
- 이영옥, “노인의 여가활동과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1994.
- 장인협·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장천식, “노인들의 레저활동과 삶의 만족에 관한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정미자, “광주광역시 노인의 여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진영아, “노인층의 여가활동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최영완, “한국 노인의 여가활용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최은영, “노년기 생활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표영희, “기혼여성의 가족생활주기와 여가활동과 여가제약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홍성희,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2. 국외문헌

1) 국외문헌

A Szali, The Use of Time, Mouton : The Hague, 1972.

Arlin F, Epperson, Private and Commercial Recreation, New York, N.Y. : John Wiley & sons, 1977.

Dumazedier, J. Toward a society of Leisure.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Edington, C. R., Jordan,E. J. De Graag, D. G. and Edington, S. R Leisure and Life Satisfaction., W M. C. Brown Communications. Inc. 1995.

2) 국외논문

Berger, B. "The sociology of leisure:some suggestions", Industrial Relations, Vol. 1, 13-15, 1962.

Boothby, J.,M. F. Tungatt, and A. R. Townsend. "Ceasing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y: Reported reasons and their implicati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3:1981.

Breen, L.,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1960,

C. Gordon, C. M,Gaitz, & J. Scott, Leisure and lives: Personal Expressivity across the life span, In R. H, Binstok &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Van Nostrand, 1976,

Crawford, D. W.,& Godbey, G.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9, 1987,

D. K, Hawes, Satisfaction Derived Frem Leisure Time Pursuits: An Exploratory Nationwide Survey, Journal of Research 10, 1978.

Franken, D. A. and W. F. Van Raaij. "Satisfaction with leisure time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6: 1981.

Godbey, G. "Nonuse of public leisure service: A model"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3: 1985.

G. E. Mckechine,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leisure : Past behavior", Journal of Leisure Research, 6, 1974.

Henderson, K. A., D. Stalnaker, and G. Taylor. "the relationship between barriers to

- recreation and gender-role personality traits for wom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 :1988.
- Jackson, E. L. "Activity-specific barriers to recreation participation" *Leisure Sciences* 1983.
- Jackson, E.L & E. Dunn. "Integrating ceasing participation with other aspects of leisure behavior."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1988.
- J. E, Trela, Clss and Association Membership, An Analysis of Age Gurarded and Non-Age-Guarded Voluntary Participation, *Journal of Gerontology* 31(2), 1976.
- McGuire. F. A. "A factor analytic study of leisure constraints in advanced adulthood." *Leisure Sciences* 6: 1984.
- Orthner, D. K., Patterns of leisure and martial inter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8(2),
- Parker. S, *The Sociology of Leisure*, London George Allen & Bacon, 1979.
- Parker. S, *Leisure and Work*, London handbook: 1983.
- R. B, Settle, P. L, Alreck, & M. A, Be; cj, Social class determinants of Leisure Activity,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6, 1979.
- R. Larson,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33, 1978.
- Romsa. G. and W. Hoffman. "An application of non-participation date in recreation research:Testing te oppotunity theory." *Journal of Research* 12: 1980.
- Seppo E. Iso-Ahola, Edger Jackson and Elaine Dunnm " Starting Ceasing, and Replacing Leisure Activities Over the Life-Spa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6,1994.
- Searle. M.S.and E.L.Jackson. "Socioeconomic variations in perceived barriers to recreation participation among would-be participants." *Leisure Sciences* 7: 1985.
- Wylson, A., *Design for Leisure Entertainment*, Boston : Butter Worth Inc. 1980.

ABSTRACT

A Study on the Leisure Constraints and Leisure Activity Patterns of Elderly

Yeon-Hee Yun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The Graduates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Byoung-Kil Choi

As our society is advancing into an old society,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elder. Particularly, as many elder are alienated to spend time alone due to urbanization and increasing nuclear families, their use of leisure time becomes the most important elders' problem.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was aimed at reviewing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elders' use of leisure time and thereby, suggesting the ways to activate their leisure life.

This pater was organized into five parts.

In the first chapter, objectives, methodology and scope of research was introduced.

In the two chapter, the review of literature about leisure activities and constraints was executed.

In the three chapter , the design on empirical method for the study was explained.

In the four chapter , this chapter explained for leisure constraints connected activities we can say the most important hypothesis in this paper. Cluster analysis method has explained more than others method. And then,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reveal how elderly leisure activity pattern are influenced constraints follow cluster analysis.

Finally, in the five chapter is conclusion and suggestion for research direction of future that will be the strategies of elderly leisure activities.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of the study, the theoretical background was described along with a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about leisure activities and constraints. Based on these theoretical backgrounds, the hypotheses are set up and empirical analysis, analysis methods such a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were performed.

This study and not be applied to all cases because this study is focus only on citizens of Jeju city and has a limited sample for more sixty five years elderly. This study focused on the an elderly leisure constraints of many variables which connect leisure activities.

The leisure facilities discussed here are not wholly but partly used by the elder. Because there are few other welfare programs, the elder use them much. Rather, it may well be more important to study the elders' leisure activities at the elders' welfare facilities or various the elders' concentration facilities. In this vein, it is hoped that future studies will focus not only on the prevalent elders' welfare centers or the elders' classrooms but also on more diverse and advanced leisure facilities.

설문지

♣ 노인의 여가제약과 여가활동 유형에 관한 의견조사 ♣

--	--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가활동에 있어 여가제약과 여가활동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평소 즐겨 참여하거나 하고자 하는 여가활동 유형에 관하여 진솔한 생각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의견은 오직 연구만을 위해서 사용될 것을 약속드리며, 의견은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지에 기재된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하오며 번거로우시더라도 면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답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 4

지도교수: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경영학박사: 최 병 길

연구원: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석사과정

윤 연 희 (016-639-7141/ 712-6701 / yeon8009@naver.com)

다음은 귀하께서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약(장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세요.

여가 제약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돈이 없어서	①	②	③	④	⑤
2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①	②	③	④	⑤
3	교통이 불편해서	①	②	③	④	⑤
4	건강이 좋지 못해서	①	②	③	④	⑤
5	가족들의 협조와 이해가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6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①	②	③	④	⑤
7	가까운 곳에 시설·장소가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8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①	②	③	④	⑤
9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①	②	③	④	⑤
10	열의가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여가활동이란? 노동시간, 생리적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해당하는 여가활동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여가활동 유형		전혀 안함	거의 안함	가끔 함	자주 함	매우 자주 함
1	컴퓨터(인터넷, 통신)	①	②	③	④	⑤
2	학습활동(교양강좌, 노인학교 등)	①	②	③	④	⑤
3	신문, 잡지, 독서 활동	①	②	③	④	⑤
4	서예, 미술, 음악 감상, 다도	①	②	③	④	⑤
5	낮잠 또는 휴식	①	②	③	④	⑤
6	TV 시청, 라디오청취	①	②	③	④	⑤
7	운동(등산, 산책, 조깅, 체조),	①	②	③	④	⑤
8	가족 동반 외식이나 외출	①	②	③	④	⑤
9	손 자녀 돌보기	①	②	③	④	⑤
10	화초재배, 집안가꾸기, 음식만들기	①	②	③	④	⑤
11	커피숍, 노래방 가기	①	②	③	④	⑤
12	시장 가기, 쇼핑	①	②	③	④	⑤
13	주일 예배, 미사(종교활동)	①	②	③	④	⑤
14	사회봉사활동(자원봉사, 후원회활동)	①	②	③	④	⑤
15	정치적 각종 정당 활동	①	②	③	④	⑤
16	사회참여활동(계몽, 청소년 선도)	①	②	③	④	⑤
17	놀이, 오락(장기, 바둑, 화투, 카드 등)	①	②	③	④	⑤
18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참여	①	②	③	④	⑤
19	경로당, 노인회관 참여	①	②	③	④	⑤
20	친구 및 이웃집 방문	①	②	③	④	⑤

귀하의 기초조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자세히 읽고 해당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 자 () ② 여 자 ()

2.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65세~70세미만() ② 70세~75세미만() ③ 75세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이상()

4. 귀하께서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 ① 독신() ② 부부() ③ 아들가족() ④ 기 타()

5. 현재 귀하의 한 달 용돈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만원 미만() ② 10만원~20만원 미만() ③ 20만원~30만원 미만()
④ 30만원~40만원 미만() ⑤ 40만원 이상()

6. 귀하의 용돈은 주로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 ① 스스로 번다() ② 배우자의 소득() ③ 자녀들로부터 받는다()
④ 연금이나 퇴직금을 활용() ⑤ 정부 보조금에 의존() ⑥ 기 타()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